朝鮮日報
夕刊
五日 (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難攻不落廬山陣地
敵主力亂算潰走
我空陸軍呼應肉彈突擊에
敵址는屍山血海化

【新塘四日發同盟】 廣濟、瑞昌、德安、南昌의 一線으로 武漢防衛의 生命線으로하고 武漢防備司令 陳誠은 蔣介石의命을 바더 廬山山系一帶를 中心으로한 江南 山岳地帶의 天嶮을利用하야 數段에 亘한 恒久的陣地를 構築하고 四十個師 精銳部隊를 重疊한 山岳에 配置하야 잇는대로의 砲火를 利用하야 我軍의 進擊阻止에 當하고 武漢方面으로부터 續續 中央軍의 新銳部隊를 增援하고 잇는데 이 一戰은 武漢三鎭의 運命을 決할것으로 어데까지라도 여를死守하야 日本軍을 一擧에 殲滅하라는 嚴命을 發하야 各軍의 督戰에 努力하면서 一方으로 難攻不落을 자랑하고 잇섯든바 連日連夜에 亘한 我江南 各軍의 勇猛果敢한 肉彈突擊과 空陸相呼應하는 猛攻擊에 廬山一帶의 敵址는 文字 그대로 屍山血河로 化하야 무너니 頑强하든 敵도 드디어 抗拒치못하고 廬山一角陣地로부터 문허지기시작하엿다 敵의 動搖를 看取하고 遲滯업서 總攻擊에 드러간 我各部隊의 最後突擊에 馬廻嶺의 主陣地도 드디어 三日 午後四時 完全히 陷落, 三十個師餘의 大軍을 潰滅하야 敗敵은 亂算潰走, 陳誠이 不敗를 豪語한 廬山 山麓의 主力部隊도 完全히 四分五裂이되엿다 江南戰線 一帶의 防衛陣은 허술하게 敗하야 武漢死守의 第一防禦線은 皇軍의 아페 脆弱性을 暴露함에 이르럿다

飯田部隊 烏家嶺에到達

【馬廻嶺에서四日同盟特派員發】 馬廻嶺에 第一着한 飯田部隊는 敗敵을 急追하야 前進四日午後四時에는 馬廻嶺 東南二粁되는 烏家嶺에 到達하엿다

武漢防衛第一線續續崩壞

馬廻嶺을突破 到處에서激戰

【九江四日發同盟】 四日早朝 馬廻嶺 東西敵陣을 突破한 我進擊部隊는다시 南潯鐵道兩側에沿하야急追、一路南方을向하야 殺到하고잇다 敵은德安北方及西方에設한 旣設陣地에 續續大軍을派하야 我追擊을 阻止하고저 先頭各部隊는 벌써이와 激突、午前부터 午後에걸처 到處에 激戰을보이고잇다

【新塘四日發同盟】 廬山西南馬廻嶺까지의敵은 中央軍精銳 三十個師에미처 數日間 頑强히抵抗을 繼續하엿는바 我猛攻에依하야 敵의死傷은 一萬餘를算한다 二三日兩日間 戰鬪에서 二千의 遺棄死體를算하야 거의殲滅에 瀕하고잇다

【瑞昌四日發同盟】 四日朝 瑞昌西北에 進出한我軍은 于先梅山을攻略、戰果를擴大하고 또 瑞昌 西南戰線은 到處에 彼我激戰이 展開 瑞昌南方約四里 斬家舖北高地에는 壯烈한爭奪戰을 演하고잇다

【上海四日發同盟】 艦隊報道部 四日正午發表=昨九月三日 主要戰況은 如左하다

海軍航空隊는 廬山西方地區에서 陸軍의 攻擊에 策應하야 潰走하는敵兵을攻擊、多大한戰果를거두고 또南支方面에서는 猛烈한 防禦砲火를 冒하고 粵漢線路南部에서 線路四個所를 爆破切斷하엿다

峻嶮路를猛進 周庄도遂占領

【九江四日發同盟】 廬山西側의 敵第一抵抗線 鷄公嶺 馬鞍山 牛頭山의 堅陣을突破 三日以來 大追擊戰에옴긴 我精銳各部隊는 數里에 亘한 重疊한 幾多의 峻嶮을 無二無三突破 南方의敵을 反擊擊破하고 猛進을 繼續하야 四日早曉에는 이미 先鋒은 ○○線에 進出 다시 奔馬와가티 南方으로 進擊하고잇다

【○○에서四日發同盟】 東孤嶺을 陷落하고 그西南麓에 進出하야 廬山山系에 風雲의 去來를 바라보며 時機를기다리고잇든 飯塚、鳥海、山田、八住各部隊는 四日午前六時 前面의 敵에對하야 一擧攻擊의 砲門을열고 猛烈한 砲火를 더퍼씨워 一擧에山勢의 險悍을넘고 右翼部隊는 午前十一時劉家를陷落 隘口街本道를 進擊、또他一部는 劉庄西北方陣地를 占領하고 隘口街의 敵主力陣地를 側面으로부터 攻擊中이다

【○○에서四日發同盟】 三日夕刻馬廻嶺을 占領한 敵을追擊하야 廬山東側迂廻津田部隊는 ○○街道南下部隊와合流 四日早朝 다시南下追擊하며 途中에小丘陵及 無名河岸을 據하고 抵抗하는敵을 一蹴하고 午前九時馬廻嶺南一키로 周庄을 占領하야 先遣部隊는 繼續敵을 ○○에向하야 追擊中이다

多大한 戰果를 거두엇다 津田部隊와함께 南潯鐵路東側을 南進中이던 飯塚國五郞部隊長은 津田部隊의 東孤嶺占領과 呼應하야 廬山東麓一字山의 頑敵을 猛攻、部隊의先頭에서서 部下를 指揮奮戰中 三日午後一時 敵彈에 […]

"今番體驗을살려 他日에對備하라"
張鼓峰視察後 南總督感想談

南總督은 四日間에 亘한○○部隊慰問、戰跡及水害地視察을마치고 四日午後一時五十分 定刻보다二十五分 느게京城驛着 歸任한바 今番視察感想을 다음과가티말하엿다

今番事件은 極히 重要한事件이엿다 나는再昨年八月 着任한後總督으로서의 第一回巡視를咸北으로 行하엿다 그때咸北道에對하야는 知事以下에게 訓示하고도 軍隊幹部에게 希望한것이 잇다 「産業上에 잇서서는 躍進咸北의使命을 益益發揮하라 國防에 잇서서는 帝國의 唯一蘇聯과直接關하는第一線인것을 생각하고 民衆의訓練及指導에 注意하라」는 이것이나의訓示要旨이엿다。 이가르침을 반드시 豫期하고 한말은아니엿스나 何時에 勃發할는지알수업다고 생각하던것이 昭十一年도못되여 實現된것이다 今後第二第三張鼓峰事件이란것이 發生치안흐리라고 누가 保證할수잇겟는가 그래서 今番體驗에依하야 軍民一體와 다시內鮮一體는 그實績을 益益深化하고 他日에備하야 諸般計畫과 準備에 充分한 注意를 하지안허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무론일을 整備하는데는 實際에卽한 體驗보다 나흔것은업다 今番體驗으로 아마 軍部도 우리가 想像할수업는幾多의 貴重한 經驗을어덧슬것이다 그리고 咸北官公吏及民衆도 最善을다하엿섯다고 생각하고잇슬것이다 그러나 回顧하여보면 幾多의遺憾된點도 잇슬것이다。이것을모두 貴重한敎訓으로삼어 今後에 慘憺한犧牲의 實際에힘잇게 살려가기를切望한다 軍과地方과 個人에對하야 幾多의美談을直接들엇다 그들의 精神的 發露及 그마음이 얼마나 崇高한것인가에 對하야는 이를 一般에 알리고저한다 北鮮第一線內鮮人은 大衆的立場에서 마음으로 써 帝國臣民인것을 깨닷고곳게손을마주잡고 나아가지안흐면안된다

飯塚部隊長 戰、死

【星子四日發同盟】 星子를攻略한

偉勳을싸코戰死한 飯塚部隊長

【上海四日發同盟】 廬山山系一字山의激戰으로三日午後壯烈한戰死를한 飯塚部隊長은 昨秋上海戰鬪때 大場鎭北方小宅激戰時에 名譽의戰死를한加納部隊長後任으로 ○○部隊를指揮하고 友軍福井部隊와함께 大場鎭을攻擊、激戰한後 마츰내 이를占領하야 勇名을떨첫는바 嘉定攻略、杭州會戰에參戰 그後는 中支各地에轉戰하야 南京攻略戰에 當하고 上海其他主要都市警備에 奮戰하여왓스나 今番武漢攻略戰에際하야 ○○을出發 八月二十一日 星子附近에 敵前上陸을 敢行하고 星子占領의殊勳을세운後 廬山南의激戰에 參加하야 武漢防衛第一線인 廬山峻嶺牯嶺一字山의 堅陣에依한 頑敵에對하야 스스로 陣頭에서서 奮戰中마츰내 敵彈을마저 드디어 名譽의戰死를하엿다

時事解說

占領地域의治安狀態

蔣介石은 所謂「人民武裝」에 依한 游擊組織을强化하야 그들의 長技인 「게릴라」戰法으로써 後方攪亂을 策謀하야왓는데 徐州가 陷落되자 一時 匪賊團의 跳梁이 顯著하야 그數 實로 十一萬이라는 놀라운多數에 達하엿다 그러나 그後 高粱의 茂盛期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그들의活動이 容易하게되엿데다가 方今 漢口陷落이 目前에 切迫되매 蔣介石의 最後抵抗을 援助하야 그活動은 더욱 熾烈하야진모양이다 그러케 그被害는 平地보다도 山地가 더욱더 甚하고 그數는 占領地域內에서만 二十五、六萬으로부터 百萬까지로 推定되는데 그指導의 任에當하는것은 非但 蔣介石政權뿐만아니라 共産黨이 또한 積極的으로 進出하고잇서서 治安狀態는 매우 不良한 形便이라고한다。◇ 京漢方面에는 晉北山地、淶源、五台、五寨附近을 根據로 하는 共産軍이 主體가 되어가지고 活動하고 잇는데 […] 를 노리고잇는모양이다 冀東方面 冀東地域까지侵入하엿스나 我軍에 […] 逐退하엿고 北京 天津의 兩市와 그周圍는 合同討伐以來 殲滅하엿스나 憲兵과守備隊 또 英佛兩租界의 嚴重한 取締에 依하야 若干 平靜하야젓다 京漢方面 지난五月中旬까지 被害가 만핫스나 그後 漸次減少되엿다 그러나 保定 定縣附近은 依然히 鐵道 電線의 被害가 적지안흐며 八月十一日定縣附近에서는 旅客列車의 爆破事件이 생겻다 津浦線方面 東昌縣을 本據로하는 一派의 勢力은 我軍의 […] 少되얏고 […] 是 討伐에 依하야 매우적어젓다 […] 共匪는 現在 討伐中이다 山西方面 이方面의 治安은 共産黨의 […] 大體 不良한 便이나 我軍은 着着 討伐中에 잇슴으로 不遠間 그勢力의 減退를 볼모양이다 그리고 中支一帶도 我軍의 動向에따라 消長은 잇스나 亦是大體로 不安한 狀態에 잇는데 全體的으로 보아 占領地區內의 治安은 不良한現狀이고 將來로도 相當히큰 頭痛거리가 될것임은 疑心과 틀리지안흘것이다。

廬山山系殲滅戰
記錄的大成功!
敵遺棄死體만萬五千

【馬廻嶺四日同盟特派員發】 廬山山系一帶의 殲滅戰은 記錄的大成功으로 全山의敵陣地는 元來山間의狹路로 到處에 敵死體가 繁繁하야 鮮血은길에넘고 文字그대로 屍山血河를 이루어 凄慘을極하고잇다 馬廻嶺西方三키로地點의 大殲滅戰은 그代表的인것으로 다음○○部隊長의 苦心談은 殲滅戰의徹底를 遺憾업시 이야기하고잇다

우리部隊는 三日正午頃 馬廻嶺을 내려보는 高地頂上에 山砲砲列을敷고 退却해오는敵을 기다리고잇섯스나 좀처럼 敵은올것갓지 안흐므로 焦燥하고 잇슬때에 마츰 友軍의 飛行機가 날러와 上空으로부터 通信筒을 投下해 주엇다 準備가完成한때는 觀測所로부터 「前面一帶白煙을 올리며 敵大部隊가敗走해 온다 射擊用意」라고 말해왓다 「됏다」고 砲口를 느리고 기다린즉 敵도 우리들을알엇든지 急히 進路를 東方으로 變하야 다라나랴고하엿슴으로 때마츰 北方으로부터 友軍에게追及되여 敗走하는敵과 몰려 進退에窮한 敵은 우리들에게 正面으로 攻擊을하고 攻勢를 取해왓다 山砲는 숨을죽이고 充分히 敵을 끌어드린後 一齊히 砲門을여러 彈비를퍼부엇고 步兵部隊도 이에 呼應하야 重輕機關銃으로 一齊射擊을 開始하엿다 前方의 敵이 넘어지는대로 뒤로부터 오는敵은 次例로 銃砲의洗禮를바다 我陣地正面은 文字그대로 屍山을보앗다 敵은全然戰意를잃고 右往左往할時에 […] 突擊해온支那軍의 […] 服裝이 멀리아래로 田圃사이차서 집이라는집은 敗殘兵이 充滿하엿스나 이것도 남김업시 해내고말엇다 敵의 戰死者中에는 大佐一名 中佐二名外多數의 將校가잇고 追擊砲小銃機關銃其他鹵獲品은 山과가티 만타

【馬廻嶺에서四日同盟特派員發】 三日早曉에 세갈래로 나노아急追에 옴긴 我○○部隊는 到處에退却하는敵을 粉碎하면서 追擊、木島部隊는 鷄公嶺에部隊를 集結하고 山間을헤치고追擊、黃龍港에서約六百의敵을 殲滅한後 車輪단숨에 突破하고 途中 中間山의峽所를 기여올라 […] 正午벌서 馬廻嶺으로부터 五키로의地點에 達하엿다 […] 敵의遺棄死體數는 二萬五千 […] 街道上에서 反擊하는 敵을擊破、[…] 南方으로부터 西至으로猛거 山地로드러 所在의 敵을擊破하고 午後五時半 梅田部隊를 先頭로 馬廻嶺에 突入、殊勳의第一擧를敢行함과 同時에 園田部隊는 衛衛를무릅쓰고 東方을도리어 出山을바라보아 潰走하는 敵을急追、馬渡橋東方五키로의 赤塗山에서는 敵大部隊와激戰을하고잇다 敵의遺棄死體는 約一萬五千、鹵獲品은 迫擊砲기十門 其他捕虜百餘名이다

廣濟縣城의陷落
漢口防衛에大威脅

【香港五日發同盟】 漢口來電에依하면 揚子江北岸支那軍의要衝廣濟의陷落은 이미時間問題가되여 漢口外人側에서는 廣濟의占領은 支那軍의 漢口防衛陣에 一大影響을줄것으로 다음과가티 觀測하고잇다

廣濟陷落은 同地가 長江에沿하야 揚子江에通하는 最後의 通路上에잇기때문에 今後日本軍의進擊을 容易케할것이다 또 同地가 日本軍의손에 드러갈때는 江岸의 支那軍을 包圍하는 態勢를 取하게되여 支那軍의 防衛第一陣地인 蘄州에서 攻防戰이 展開될것이다

一方 馬廻嶺 陷落의 重要性도 無視못할바로 馬廻嶺 陷落後 日本軍은 南潯鐵路에沿하야 南進 南昌을 壓迫할수도 잇슬것이요 또 武寧、粵漢鐵路上의 要衝에 向하야 西進、粵漢線을 遮斷할수도 잇슬것이다

【東坊鋪五日發同盟】 大別山系의 諸堅陣을 破하고 金山寺 山麓으로부터 廣濟縣城을 바라보며 進擊을 繼續하고잇는 佐野、若松、中野、長谷川、藤村各部隊는 五日午前一時月明을 利用하야 數日에亘한 大夜襲을敢行、敗走하는 敵을 追擊、[…] 前八時廣濟前面 敵陣地까지 肉薄으로서 이를奪取하엿다 廣濟方面을 敗走中 廣濟까지의 距離는僅히六키로 至今은 廣濟前面의 敵最後線인 […] 目睫에迫到하엿다

近衛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 近衛首相은 五日午後一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에게拜謁、一般政務에關하야 委曲上奏 여러가지 御下問에奉答하고 御前을退下하엿다

太田南下部隊 固始로攻擊開始

【○○에서四日發同盟】 北方部隊는 行動開始以來 連日豪雨를 冒하고 […] 太田部隊는 四日未明 敵陣地에 […] 激戰한後 四日午後 時 石灰店을 占領하엿다

固始南方要衝 南大橋占領

【固始東南方三十里西方에서 更】 潰走하는敵을 追擊 敵前渡河하야 南大橋(固始南方二十里)로 進出、固始로向하야 攻擊을 開始하엿다

【廣州五日發同盟】 黎家集으로부터 一路前進 固始前面의要衝石佛店을突破하고 北進中인 我○○部隊는 四日午後五時 固始南方十里地點에잇는 南大橋를占領하엿다

最近重慶에서 全國銀行家會議

【上海五日發同盟】 銀行界의 消息에依하면 國府는去六月開催한 漢口銀行家會議에서 決議된 諸事項의 執行効果를 聽取하기爲하야 最近重慶에 全國銀行家會議를 招集햇다고 傳한다 現在 […]

我海軍航空隊 京山軍事施設을爆破

【上海四日發同盟】 去四日早曉我海軍荒鷲가 敢行한 敵重要據點 京山의大爆擊은 完全히 敵의 軍事施設을 爆破하고 […] 最近當地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同地에는 爆擊의 一兩日前까지 敵의 總帥蔣介石이 滯在하엿든바 爆擊同時에 長沙로 避하야 危機를버서낫다고傳한다

堅壘金山寺陷落코
廣濟占領도目睫間
空、砲、掩護下에我軍猛進

【○○四日同盟特派員發】 激鬪實로十日間餘 廣濟陣地第一第二線을 强硬突破한 若松、中野、長谷川各部隊는 至今이야말로 敵의 猛攻纜壘의防禦線인 金山寺五峰山、金山寺、大富山으로向하야 四日午前六時를 期하고 새벽에沙坊河를 敵前渡河 總攻擊을 開始하야 決死的으로 銃砲火를퍼부어오는 敵攻擊에對하야 陸海軍의 適確한空爆과掩護砲擊下에 一二○高地를占據하는高峰을차례로 占領한後 午前九時마츰내 그最後線을 突破、山頂에노피 日章旗를揭揚하엿다

【○○四日同盟特派員發】 湖北戰線金山寺를 손에너흔 佐野、長谷川兩部隊는 敵의 第一堅陣을 奪取攻擊하야 同地를頑强히死守하는敵을 擊破한後 午前七時五十分頃 完全히 이를占領하엿다 이가타하야 廣濟前衛第一陣地의 一角이 突破된것은 […] 廣濟西方部落으로부터 軍用추럭에增援部隊를 滿載하고 廣濟로向하야 續續增援中이다

【○○에서四日發同盟】 廣濟前面陣地 金山寺八疊寨堅壘도 四日午前九時 我長谷川、中野、佐野、若松等諸部隊의 總攻擊으로 […] 崩潰되여 敵兵은 銃器를 버리고一齊히 潰走한바 때마츰 我空의精銳는 […] 大低空飛行을敢行、이潰亂의敵에 對하야 마음대로 機銃掃射를 퍼부어 더욱큰損害를주엇다 我部隊는 […] 將兵은廣濟縣城을 眼下에바라보며 一擧에 이를 陷落코저意氣軒昂하야 廣濟까지는 不過二十里로 남엇슬따름으로 그運命은 今明間으로迫頭되엿다

【小池口四日發同盟】 廣濟防備第一線의 堅陣金山寺、王家嶺、田家嶺의 頑敵과 死鬪十數時間에 어르는 白兵戰으로써 果敢한攻擊을 加하고잇는 佐野、細川兩部隊는 四日、午後三時二十分마츰내 그最後峰金山寺를 完全히 占領、標高 五百米되는 山頂에 […] 廣濟로向하야 一路進擊中이다

廣濟로進擊

【○○五日同盟特派員發】 一出卽一個의 要塞인 觀이잇는 大別山峻嶮의 敵堅陣을陷落하고 各山頂到處에 日章旗를揭揚한 江北參戰部隊는 敗走하는敵을 追擊하야 四日夕陽에는 이미廣濟 第一陣으로向하야 猛進中이다

주黨側態度軟化?
란시맨卿隨員헨氏와重要會談

【프라하四日發同盟】 란시맨卿의 隨員파트리크氏는 四日正午수데텐黨本部로 헨라인黨首를 訪問하고 重要會談을行한後 午後一時半辭去한바 同會談에서 헨라인黨首의 意向을打診하고 同日夕陽프라하로歸還하엿다 一方프라하南部에 週末旅行中인 란시맨卿도 午後六時프라하로歸還卽時 파트리크氏를招致하고 헨라인黨首와의 會見內容을聽取하고 今後의 對策에對하야 여러가지協議를하엿다 헨라인、파트리크兩氏의會見內容은 아직 判明치안흐나 주데텐黨側의 態度는 얼마큼 緩和된 模樣으로 四日夜란시맨卿側近者는 此間의 空氣를反映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파트리크氏는 헨라인黨首와의 會見에서 매우조흔 印象을 어든모양이다 그러나지나친 希望은 禁物이며 交涉은 헨라인의 베르히테스가덴으로부터 歸還後에도 絶望은아니다

陸軍荒鷲隊
德安、南昌을猛爆

【南京四日發同盟】 中支軍四日午前十一時半發表=龜井、石川兩部隊長이 引率한 陸軍飛行隊는 昨三日早曉 德安南方地區(○○、南潯鐵路를따라 德安南方地區)를 […] 軍用路上을 北上하면서 敵주력約三十數輛의 大群을發見、이에 猛爆을加하야 거의潰走케한後 다시 附近에集合中인 千數百의 敵密集部隊에 對하야 猛烈한 攻擊을加하야 潰走케한바 繼續하야 南昌上空으로부터 猛烈한 地上砲火를무릅쓰고 飛行場을利用 到處에 爆擊을加하야 軍用建築物을 爆破炎上케하야 多大한戰果를 거두고 全機는無事히歸還하엿다

我○○部隊 筆架山을占領

我精銳部隊는 繼續南下하야 追擊 順河店으로 肉薄하고잇다

【○○五日發同盟】 赤湖西南畔의 武山西麓을 쫓처내려와 湖水가치 敵의 堅陣筆架山에 迫到한 ○○部隊는 昨夜深更 果敢한大夜襲을 試하야 단숨에 筆架山東麓及東北麓으로부터 山上의敵에게 猛攻을 加하야月明下에壯烈한 白兵戰을 演하고 五日午前六時同山을 完全히占領、日章旗를高揭하고 揚子江을 […]

葉家集前面의敵 潰亂을開始

【廣州五日發同盟】 富金山一帶의 山岳陣地에據하야 去○日以來 我猛攻에頑强히 抵抗하는 河南省葉家集의 敵三千名은 四日東方及西南方面으로 開始된 我軍의 總攻擊에 潰亂키始作하야 一部는 […] 方面으로向하야 十數門의 迫擊砲로 아즉남어잇서 猛烈히反擊하여와서 四日夜半부터는 猛烈한激戰이 繼續되고잇스나 我軍은 […] 突破하고 戰況은極히 有利하게 展開하고잇다 地上部隊에 呼應하야 我飛行部隊는 四日午後 葉家集으로부터 […] 走하는 敵輜重部隊에 爆擊을加하고 다시 […] 徹底히 爆擊하엿다

도 ○○部隊는 午前七時大鄕上高地에 ○○을布陣하고 敵頭上에 巨彈을퍼부어 制壓中이다

順河店의頑敵 殲滅도在邇

【葉家集四日發同盟】 史河東岸地區에서 反擊해온 二萬五千의敵에 對하야 里見、兩角兩部隊는 正面으로 이에對抗 一方倉林部隊는 夜陰을타서 富金山、華燈山의 堅壘를 突破하고 一擧에 順河店(葉家集西北四十里)으로 肉迫하엿고 또 長尾、古丸部隊는 葉家集北方으로부터 史河를渡河한後 敵의後方으로 迂廻 四日黎明에 敵은 完全히 我三面으로부터의 包圍에 빠저 二萬五千의敵大集團은刻刻으로 殲滅의運命에瀕하고잇다

【葉家集四日發同盟】 四日午前十時頃我航空隊의 偵察에 依하면 順河店에잇든敵司令部는 商城으로向하야 退却을開始하고 三日夜來 頑强히抵抗하던 敵第一線도 我果敢한攻擊에 屈하야 四日午前九時頃 마침내總崩壞된

我精銳○○機
德安一帶爆擊

【○○基地四日發同盟】 現在○○部隊、久保木部隊의 精銳○○機는 四日午後二時 銀翼을 […] ○○基地를出發、地上七百米의 雲層을 뚫고 德安一帶에 大爆擊을 敢行하엿다 이날 困難한 視界에 […] 德安縣城防衛에 最後의 抵抗을 繼續하는 敵大部隊의 頭上에 ○○키로의 巨彈을 퍼씨우고 다시 […] 街道를 沿하야 永修로 向하야 退却하는 敵을 徹底的으로 爆擊、機銃掃射를 하엿다 다시 阪北中尉의 指揮機는 德安 永修驛近에 […] 이空襲에서 […] 修街道를 敗走하는 敵輜重部隊를 發見、이를 爆擊하엿다 又 斯波中尉의 指揮機는 永修河를溯江하는約五百噸運送船五隻을 發見、內二隻을보기조케 爆沈시켯다

蘇聯將校參劃 風陵渡附近戰鬪에

【石家莊四日發同盟】 […] 占領한 風陵渡에 對하야 黃河對岸 […] 丘陵上에 […] 火力을集中하야 […] 이미 蘇聯將校의 […] 參加하고잇다 […]

八面鋒

初等學校를 擴充하라니 敎員이 不足하다고。

◇ 新設學校를 擴張하라면 師範校敎員이 不足지 안흘가。

◇ 産業界에는 人夫難、敎育界에는 敎員難、求職群에 明朗報지만 아즉도 失業群이 左往右往하니 쓰이는사람만 쓰이는가。

◇ 北支民衆을 또다시 豪雨襲來로 구름짝만 보아도 놀라던 가슴이 돈닐만 햇겟군。

◇ 死傷者 千九百이라니 數字만도 놀랍지만, 復舊工事는 어찌되나?

◇ 霖雨과 水災로 非常時 體驗한바 잇다면 그所得이 크다고 南總督 感想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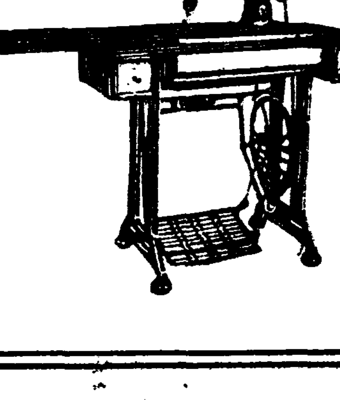
◇ 何必 咸北이리오 朝鮮全體가 그것을 알미 必要。

人事·集會

▲加藤不二夫氏(京畿道警察部保安課長) 新任人事次五日來社
▲大井幸七氏(鍾路警察署高等係主任) 同上
▲岡村繁雄氏(龍山警察署高等係主任) 同上
▲梁基涉氏(天主敎會司祭)渡來人事次 本社平南支社來訪
▲李炳福氏(潼正學校長)新任人事次同上
▲佐藤繁氏(關稅官 新義州稅關安東出張所長) 新任人事次九月三日本社新義州支局來訪
▲李鍾麟氏(天道敎會大宗司長) 平安南道各地敎況視察次今夜東京로出發
▲朴陽信氏(同央宣觀員) 同上

國産サイレンスミシン

謹啓 諸位御清穆하심을 伏望하오며 今般弊店은 業務를 擴張하옵고 府內社稷町으로 工場을 新築移轉하야 精密한アームベット及新舊式脚部其他附屬品一切을製造하오며 機械에잇서도一層精密히工作하얏사오니 倍前御用命하심을伏望 敬具



(特許出願中)
コリアミシン製作所
開城府社稷町三一六
振替京城二六三二一
電話 四〇番

清血排毒強心劑
海草精
日本政府 專賣登錄
適應症
[…] 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病、神經痛、喘息、[…] 腦溢血、中風、[…]
京城府鐘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京二三〇九八番 電光 二三三四番

當選謝禮
今般群山商工會議所議員選擧에잇서當選의榮을得한바이는오로지諸位의援助임을感銘하고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昭和十三年九月一日 (當選順)
金龍培
辛日善
群山薪炭株式會社
李晩秀
南璋熙
丁斗鉉

神經痛 류마치스에 ネウロジン (金剛)

코나쁜사람
自宅에서 할수잇는 고치는法과그方法

蓄膿症手術圖

코가맥힌다. 콧물과黃濃色의코가 줄줄나온다. 냄새를잘맛지못한다 […] 골머리가 무겁다. 記憶力과 思考力이 漸漸衰退한다。右의症狀의어느것에나該當한者는 蓄膿症에걸린證據이다 이러한者는먼저自己의鼻病이무슨病名의鼻病인가를알고 고치는法을아는것이 제일 捷徑이다 當所는이러한것을 구하야알수잇도록 懇切히說明한 鼻科講座라하는冊을 朝鮮日報讀者라記入하야申込하면 無代進呈한다 辭讓말고申込하라。
埼玉縣大宮町 (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待望의新 부터!
幸福스러운 希望의健康으로
中央體育研究所

眞性虎列刺再襲

殷栗郡金山浦에서 五名發生、四名死亡

八月三十日부터漁夫中에서續發

侵入系統아직不明

【平南支社電話】황해도은율군금산포(殷栗郡金山浦)에 매여두엇던 어선일곱척가운데 팔월삼십일일부터 어부다섯명이발병, 삼십일일에 한명, 구월이일에두명, 동삼일에한명 합하야 네명이절명되고 남은한명도 위독상태이다 검경(檢鏡)한결과 죽은사람중 두명은 진성호열자로 또죽은두사람과 아직살아잇는한명등 세명은 의사호열자로 사일오후여섯시에 결정되엿다 어둘은 모두생선배를가지고 황해도옹진군동남면(甕津郡東南面)에서 떠나 금산포로왓던터로 그들을 엄습한 병균의 계통은 방금조사중이다

患者姓名＝甕津郡東南面松江里 張京實(三三)死亡 同面同里黃性 郭長英(二六)死亡 同面西京里黃哲 金平興(三七) 同面同里 金福萬(二〇)死亡 同金福萬母 鄭京玉(三一)

南浦서도六名發生

(金山浦에서入港한朝日丸)

海水使用禁止布告?

【鎭南浦支局電話】오일오전네시 황해도 금산포(金山浦)로부터 진남포에 입항한 어선 조일환(朝日丸)의 승조원 평북철산군백량면장평동(鐵山郡柏梁面長平洞)출생 변봉춘(邊鳳春)(二三)조상만(趙尙萬)(二二)등 여섯명이 돌연 구토와 복통을 이르켯는데 진단한결과 의사호열자로 판명되엿다 어둘은 모두 호열자발생지인 금산포로부터 입항햇스므로 병균계통은 금산포에서 온것까지도 확실하다 그리하야 진남포 경찰서에서는 즉시 어둘모두 검역소(檢疫所)에 수용하는동시에 어둘이잡아가지고온 생선은 전부소독해서 내버리게하엿다 그리고 해수사용(海水使用)의 금지령을 내리고저 평남도 당국과상의중이다

千餘船員上陸禁止

出漁도禁하고檢便實施

진남포경찰서에서는 방금진남포 항구에드러와 잇는배이백척의선원 천여명에게 상륙을금지하고 대변을 뽑아서검사하는중이며또 오일아침에 진남포지내에 드러온생선은 전부판매를 금지하고 또한 고기잡으러나가는것도 금지하엿다

平南衛生課長 南浦로急行

【平南支社電話】진남포에 의사호열자발생으로 평남경찰부의생파에서는 방역대책을 세우는동시에 현지와의협의차로 관전(關田)위생파장이 진남포로급행하엿다

四十餘同行漁夫 各地로分散潛跡

保菌嫌疑로警察搜查

호열자환자가 발견되여 야단중인 금산포의 그후 소식을 듯는지대 환자가 발견된 배와함께 옹진(甕津)서 이포구에 드러온 어선이 일곱척에 배사람의수효는 모두 사십오명이엿다는데 그중 두척에서 호열자환자가 발견되자 남은 배사람들은 용당자기들에게도 화가미처 경찰부로 붓잡혀갈것으로 넘겨잡고한 자만 남겨노코 기타는 모두가 도망해버렷스므로 금산포경찰에서 이들을 체포코저 사방에 수배중이라한다

仁川도危險地區

별항 금산포와 진남포에서 호렬자가발생하자 가장위험지대에잇는곳이 인천(仁川)으로서 지난번호열자소동을이르켯던 곳일뿐아니라 경성의 출입구인만큼 시급한 방역대책을세우기로되여 경기도경찰부와 인천경찰서에서는 방역진용을펴고 엄중경계중이다

注射藥三萬人分

總督府、金山浦로急送

侵入經路、嚴密調查中

황해도은율군북부면금산포(殷栗郡北部面金山浦)에 들어온 첫갈배일곱척중에 세척에서 호열자환자다섯명이 발생하고 그중 네명이 사망되엿다는 급보를바든 총독부위생파에서는 오일서구(西龜)파장실에서 파장을비롯하야 방금부임도중에잇는이궁(二宮)황해도 위생파장과 판게관리들이 그방역대책에 대하야 긴급협의를하엿다 이리하야 총독부위생파에서는 횡산(橫山)기사와 길정(吉井)속이 예방주사약 삼만명분을 가지고 오일오후시차로 급거현지에 출장하게되엿다 이금산포의호열자에대하야서구(西龜)파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해수사용과 어물등의 금지와 예방주사등은 황해도에서 적당하게할줄안다 방금내가 생각한것은 그어선이 금산포에 들어오기전에기항한항구와 또 상륙지의 행동이며 예방주사의여부 그연해의어업관계등을 급속조사하여 응급대책을 실시하겟다 그전염계통만 완전히 조사되면 고만이니까 이에전력을 다하겟는데 금산포만은 특지교통이 별로업스니 바다판게를상사치 조사하야방역에 만전을기하게겟다

列車橫斷타機傷

【龜浦發電】사일오전여섯시사십분에 청도역(淸道驛)을 떠나 부산으로가든 제칠십사렬차가구포역(龜浦驛)에 드러갓슬지음에 선로반(線路班)인부 동래군사상면괘포리(東萊郡沙上面掛浦里)김원재(金元載)(三五)는그열차의아플 가로건느려다가 너머저 열차에 부듸처서 머리와 억개에중상을 입엇는데 생명이 위태하다한다

엉터리鑛業家

詐欺行脚타被捉

엉터리광업가 —— 사일밤 열시경 종로네거리에서 파출소원이불심심문을 하다가 주소부정의 이정호(李貞浩)(三)를 잡어서 종로서로인치 엄중취조중인데 그는 금년여름에 함남고원(高原)서 상경하야 일본여관에 광산가로 자처투숙하고 그여관에 목고잇는 시골장사어부자에게 자기말을 분명히하라고 감언으로 꾀여서 금전을 사기해먹은것을 자백하엿다 현재판명된 피해자는 동아여관(東亞旅館)에 투숙하는 나주사람 양경식(梁敬植)을위시하야 사오명에피해액이 수백원에달하다

時急對策調査委員會

委員等百一名、明日初會同

명칠일오전 구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개최될시국대책조사위원회(時局對策調査委員會)총회의 제일일 일정은 다음과갓고 그리고 위원은전부 일백일명으로 당일출석할위원은 칠십명정도으로 구정되리라 한다

一、會長人事

一、議事

一、分科會及所屬委員의決定

猛烈한颱風

近畿、四國、中國中心

【東京電話同盟】五日午前九時中央氣象臺發表＝지난일일에 남양(南洋)다잔섬 부근에서 발생한태풍은 서북서로 이동하야 삼일아침에 소립원(小笠原)해상 사백키로에 달하야 천천히 북서로향해서 사일오후 여섯시에는 기담해협(紀淡海峽)의 남방약칠백키로의 해상에 달하엿다 그뒤그태풍은 방향을 북쪽으로옴겨서 오일오전여섯시에는 기이수도(紀伊水道)남방 약백키로의해상에 달하엿다 태풍은 매우강하야 시도(示度)는 칠백이십미리 어하로 추정되며 중심부근의 풍속(風速)은 삼십미돌이상인데 비도 상당히올모양이다 태풍은 오일정오에 근기(近畿)부근을 지나서 일본해로 빠저나갈듯한데 근기(近畿) 사국(四國) 중국(中國)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서부도 태풍의 피해가 잇슬모양이어 특히 대만은 큰파도가 넘처올념려가잇서서 엄중히 경계하여야한다고한다

襄陽地方暴雨로

襄江間交通杜絕

【襄陽】양양지방(襄陽地方)에는 작삼일부터 쉬사이업시 쏘다지는비로 남대천(南大川)강물이 급속도로 증가되여 사일아침부터 강릉(江陵)과의 교통이 두절되엿는바 비는아직까지 계속되며 각처의피해도 상당하리라고한다

平和産業犧牲者

救濟豫算無慘히削除!

狼狽한社會課對策을講究中

평화산업으로부터 희생을당하야 실직실업자로써가를 떠러지는 그들을상공과에서 전업기타방법으로 구제를하고 엇지할도리가 업서서 영영실업자가되고말염려가잇는 그들을 구제할자금을 제이예비금에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팔월말경에 유생사회파장(柳生社會課長)이 동경(東京)에 가서 그예산안을 대장(大藏)성무당국에 제출하엿든바 수일전에 이것이무참히 삭제되고마럿스므로 실직자를 구제할 준비는 고사하고 현재실직자가 홍수처럼 밀리고잇는데도 사회파로서는 속수무책인 난경에 빠지고마럿다 그리하야 사회과에서는 그래도 그대로 수수방관할수는 업스므로 최후까지최선의노력을 다해보자 실직자구제에대한 제반제안을 작성하야 명육일부터 개막되는 시국대책조사위원회(時局對策調査委員會)총회에 제출하야 총회통의를기다려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야 제이 예비금에 요구하기로되엿는데 이런 예산이 통과된다면 실직자에대한대책은 실시하게될터이오 그러치안코 ... 회과의손에서 실직자구제의손을 퍼게될것이다

理髮師의 行悖

面刀로同僚를活削

사일오후 열시경부내 신광정(新光町)삼백칠십칠번지 김종수(金種守)방 복강현(福岡縣)출생 리발사 전중헌(田中憲)(二三)은때마침 차저온 동료 욱정(旭町)일정목이백이번지 신기(新崎)리발사 경남부산(釜山)출생 김재현(金在鉉)(三)이와 싸우다가 길이 약다섯치가량의 해군(海軍)나이프로 김(金)의 배를 질러 넘어트린후 어데론인지도 망해버렷다 계출을받은 소관종로서에서는 즉시범인을수사중이나 가해자전중(田中)을 아직잡지못하고잇다 피해자김은 병원에수용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安岳高女를目標로 金氏門中十五萬圓

金鴻亮、金元亮兩氏名義로喜擲

燦!故金庸震氏遺志

【安岳】안악에는 금년봄에 어미 남자중학교가 설립되여서해서교육게에 큰기렴을 토하게되엿거니와 이제 또다시 여자중학교가 설립을 보게되리라는기꺼운소식!

그것은 이미 남자중학을 설립할때에도 각각 십만원식내인 김홍량 김원량 두분형제에의하여 던저진 거탄이다

이제 그자세한말을 듯건데지나간해봄에 세상을떠난 고갈봉김용진(故葛峯金庸震)씨가 세상을 떠날때 사회사업비로 삼십만원을 떠러서 장자인 김홍량씨에게 위탁하바잇섯는데 김홍량씨도 이에호응하여 동액을내여 사회사업에 보조를가치할것을고인의유종에 서약한바가잇섯다

그리하야 그중에서 어떤사업을태정할까를 신중히고려한결과 안악에는 이미남자중학이잇스되 여자중학이업슴을 유감히여기고 금번단연히 십오만원의설립비를 부담하여 공립안악여자중학 설립키로 작정한후 김홍량, 김원량양씨의명의로써 십오만원의 기부증서를작성하여 황해도지사에게제출하엿다 어리하야 내년도에는 그설립을볼것으로 확신이선모양이며 일반사회는 이거듬하는 안악의경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터이다

寫眞說明 (右)故金庸震氏 (左)金鴻亮氏

天氣豫報

概況 猛烈한 颱風은 四國南海上約百키로에잇서서 北北東으로轉向하라는中인데 北進할모양이 보인다。이때문에遠松以西中國地方은 暴風雨圈內에 잇다。半島東岸은 흐리엇고其他는晴、滿洲西部는 흐리고其他는晴、內地의中國、四國及西部는 風雨가 强하고其他는흐렷다。

豫報 今夜、明日晴一時曇

昨日氣溫 最高 二十七度 最低 十八度 今朝 十五度三 正午 二十七度

陰凶한運轉手

으슥한곳으로운전해다노코 婦女乘客에暴行未遂

새벽녘에 젊은여자손님을 태워가지고 가던자동차 운전수가 으슥한곳으로 차를 몰아가지고 폭행을 하려다가 동행인에게발각되어 뜻을이루지못하고 도망한 부도덕한치한 운전수가 용산서에 검거되엇다

부내화석정(華石町)이정목번지 리발직공 박옥자(朴玉子)(二)(假名)가 오일오전네시반경에 원정(元町)잇는 친척집에갓다가 집으로 도라가려고 정차를기다리다잇때 근처팔천대(八千代)택시에서 자동차운전수 김병희(金炳熙)을로 가는도중에 용산경찰서(警察署)부근에 다다렀을때 돌연 운전수가 차를 정지식이고는 『파출소』 어더서 정다하며 인적이 업는곳으로 차를 뛰어들어 폭행을 가하려다가 고함치는 소리에 뜻을이루지못하고 도망한것을 금일용산서원이 동여서체포하엿다

金保安主任談

『참으로부도덕한운전수입니다 이와가튼자가잇스면 안심하고 자동차를탈수가업슬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와가튼일이 잇서서 운전수의 면허장을 취소한일이잇지만 이번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물론 이어니와 형사처분으로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러한일이 업도록 하겟습니다』

運動競技

全日本陸上에 朝鮮서五名派遣

第二十五回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四日午前十時半 京城運動場에서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全日本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 派遣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成績優秀한選手로 自費出場을希望하는 白承旭(普專) 洪鍾文(普專) 金源祺(京城)等諸選手를 推薦하기로되엿스며 正의八百米走者는 推薦을바덧스나 辭退하엿다한다

以後의 競技는 다음과가트며 ... 先頭에나아가 往路를十六分台로 走破하고 龍山驛附近에서 不幸히고 ... 二十餘分이나 너머저잇다가 ... 四日間 甲子園南運動 ...

朝鮮陸上代表決定

▲走幅跳及三段跳＝金源祺(普專)

▲四百米＝李秉業(養正)

▲投擲＝印康煥(普專)

▲千五百米及八百米＝中村清(鐵道)

【投擲】朴賛宰＝(府廳)

【中距離】1李常榮(遞信)五八秒九

中等水上에

京師軍優勝

次位는徽文中學

每新主催의 第一回全朝鮮中等學校對抗水上競技大會는 昨四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

【二百米平泳決勝】1鹽野(京師) ... 2李大玉(普成) ... 3李大玉 ... 4余鴻根(福中) ... 5高野 ... 6崔瑞鎭(普成)

【百米自由型決勝】1金敎主(徽文)一分一一秒八 2大塚(京協)一分一九秒 3瀧積鎭(協實)一分二 4前川(京師)一分二〇秒四 5郭規鎬(徽文) 6朴斗鎬(徽文)

【四百米自由型決勝】1小林(京師)六分〇一秒 2前田(京師)六分九秒二 3禹仁鎭(徽文)六分二三秒一 4行田(京師) 5李炳福 6李榮春(徽文)

【四百米平泳決勝】1鹽野(京師)六分四一秒四 2朴禹仁(徽文)七分一秒三 3宮野(京師)七分二〇

【마라손】1金在信(京城白光)二時間五二分五九秒 2柳長春(京城)二時間五六分一〇秒 3李順成(興南)

帝大水上

【京都電話同盟】第五回帝大水上競技大會는 四日午後부터 京大풀에서行하얏는바 結局京大가 五年連續하엿다 ▲東大八五點 ▲京大六六點 ▲城大四八點

秋期리비第四日戰績

朝鮮럭비—協會主催의 秋期리그第四日의 戰績은다음과가티 遞道工團、遞道局、京師等이 勝하엿다

遞道工團 29 (18 11 … 8) 8 京城高商

鐵道局 79 (37 42 … 0 0) 0 水原高農

京城師範 35 (21 14 … 3 3) 6 大學豫科

柔道段外者

團體優勝戰

鮮支部에서 講道館朝鮮支部 道場에서 來十八日 昇段審査를兼하야 第一回 全朝鮮柔道團體 段外者優勝爭奪戰을 開催할터인데 參加團體는 學校 道場等이다

鐵道17 京電5

京城實業野球리그第一日의 鐵道對京電戰은 四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 京電先攻으로 開始하엿는데 結局十七A對五로 鐵道가 大勝하엿다

京電 0 0 2 3 0 0 0 0 0 — 5

鐵道 0 0 1 3 3 2 5 A — 17A

運動界人事

▲柳長春(陸上競技選手)今般京畿道廳土木課에就職

色鉛筆

무서운 호열자가 서해안에 상륙했다 ▲호열자의 원일홈은 『코레라』인것이 한문자로 번호자(虎)를써서 호열자라고 하는데 그실글자그대로 범가티 무서운병이다 ▲눈에보이지안는 병균이 음식물을 통해서 맹렬한 세력으로 전파되야 인명을 빼서가는 것이다 우선은 볼론 끄려먹고 그외 모든것도 생으로는 먹지안는록 여간주의치안허서는 안되는것인데 ▲전염병인만큼 한사람의 실수로 여러사람이 한업시 해를입을 경우가 만흠것을 염려하야 각자는 먼저 자기를위한 위생을 조심스럽게하는동시에 이웃을 위하야 또한조심하여야할것이다 ▲지금(今)은 개명한때라 예방수단도 맛기를 피하던가 병을감추던가 하는일은 별로이 업슬것이라하지만 공중을위하야 방역에만전을기할것이다 ▲호열자가 발생한 금산포에서는 부근의염려잇는자들이 다라낫다고는 너머나 상식에버서나는일이다 ▲저들이 다라나면 어데로가라 병은병대로 키우고남까지망치니 무지란병은또한호열자이상의병이라안할수업다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에게 蔘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습니다

本劑는聯合홀몬劑인故로身體內部로부터精力을增强시키며精力減退、神經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等으로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効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

藥價 五圓 二圓八十錢

製造發賣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丁目

賣捌元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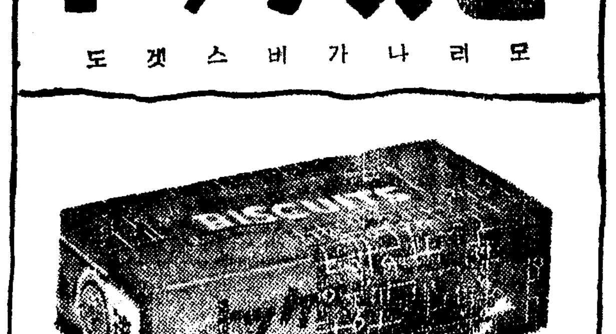
代理店 大木合名會社(東京) 高橋盛大堂(大阪)

無代進呈 見本並ニ說明書

賣行・品質・東洋一

森永 ビスケットトッ

모리나가비스켓도



大端히經濟的이오 滋養이豐富하고衛生的이라는點에서發育期에잇는아기네들에게는업서서는아니될必須品으로생각합니다 반드시愛用하여주시기仰望하나이다

(類似品이잇사오니반드시森永品이라고指定하여주십시요)

宮內省御用達 製造元 森永製菓株式會社 發賣元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어린이의善藥

小兒肝氣散 (소아간기산)

京城府阿峴町七七 製造元 普生藥房本舖

最新技術

塗工

東京塗工指導學會

新治淋特効成分發明

從來의그것과는全然다르다

아니다!

G-U-사이드 (지유)

淋疾을不治의痼疾이라고 落心하고 悲觀하든여러분! 여러분아께는 新光明이齎來되엿습니다。全世界各大學泌尿科權威諸氏가 十中八九의 治癒率이잇다고 證明하엿슬뿐아니라 東洋에서 販賣된지 不過半個年에 全治된患者의數가實로 萬으로헤이게 되엿습니다。從來의特効업는것과 가튼것이라고 速斷하지마시고 自身을爲하야 一次試服하시라。

(全國有名藥房販賣)

治淋特効藥

毛生호르몬코레스테린配合

化粧은먼저整髮부터

拔毛·折毛를防止하는 養毛整髮料·新女性의포마-드愛用者가顯著히만허젓습니다

油가不足因하야折毛裂毛의근심은一切
업다 긴쓰루의一柳이쌔진○·五%의生
毛素가잇스며頭髮障害를모掃滅식혀마음
대로整髮技巧를낼수잇다 香氣
롭고털에잘붓니며洗髮이잘됨
은勿論 頭皮의본바탕에滲透
하야脫毛를完全히防止한다

金鶴ポマード

긴쓰루포마-드

賣藥部外品

三十錢、四十五錢、六十錢、一圓二十錢

金鶴香油

本舖 株式會社 野村商店

家庭

젊은이의 신경쇠약은 대개 술이 원인에요

술군의 자식은 백에여든이이상아 이래도 술은 먹을것인가

술에는 영양분이 잇다고 믿는 사람이 만습니다. 그것은 우리술은 거의다 쌀로 만들기때문에 술은 곳 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의 성분이 물에 녹아잇는것이니 술만 먹어도 밥은 안먹어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조 틀리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쌀이 술로변화하는데는 발효(醱酵)라는현상을 통해서되기때문에 발효전의 쌀과 발효후의쌀은 아조다른 물질이되고맙니다 물론 전분이 변화된 예치르의물은 일종의 함수탄소인까닭에 우리들의 몸가운데서 에네르기의 원천이되는수도 잇스나 그러나 알콜은 체내에서 곳 산화분해되여버리므로 이칼로리ー는 몸가운데 저축해 두엇다가 필요할때 쓸수가업습니다 곳산화해버리니까요.

따라서 술에는 영양가라는게업습니다 설혹잇다고하더라도 한되의술은 한공기의 밥의영양가보다못하니술에 영양이잇다고는 할수업습니다.

술과내장기관

술은 연양을 저축케하고 위장병에 변화를 이르켜서 알콜성 위가답아가됩니다. 또한거름나아가선 몸씨 상해서 우괴양을 만드는수도 잇고 만흔출혈을이르켜 죽기도합니다 따라서위암이되는대도잇습니다.

심장은 다량의 술을마시는까닭에 혈액의내용이 증가해서심장이 보통이상으로 운동하지안흐면 안되는결과 심장의벽은늘어지고 비대한장이되여서소위지방성심(脂肪心)우심(牛心)이됩니다.

또는 동맥이 구더저서혈행이 잘되지못하고 심장은 자연히 약해저서 까딱하면 심장마비를 이르키기 쉽습니다.

이동맥경화란는것은 알콜이 혈액중에 흘러서 그내막을 침범해서 군데군데 혈관이 비후(肥厚)해지는 병증을 이르키고 따라서 혈관이 탄력이업서저서그결과는 동맥이 터지는데 이것이곳 뇌일혈입니다. 뇌일혈은알콜이 세계제일이고 그다음의포도주의나라 불란서가 다음갑니다.

다음엔 뇌신경계통에는술의남용으로 말미암아 알콜성신경쇠약이됩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이로 술을만히먹는사람에게잇습니다.

술먹는사람은 대개가 살이찝니다. 이것은 알콜의연소때문에 산소를 빼앗기고 채타지못한 다른 영양분이 지방이되여서 몸에 붓는까닭입니다. 삐ー루를 먹는사람은 비ー루가운데 함수탄소를 포함햇기때문에 다른 술보다도 더살이쪄서 그냥 비ー루통처럼 뚱뚱하게됩니다.

만주의가초올

그리고 술이란 매개물로 말미아마 가장무서운 병을 옴겨가지고 다니는것가운데 매독은 참으로 비참한병입니다 이러한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술을 금하지아니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불결한곳에 드나들다가 이러한병을 엇는것입니다.

술과우생학

부모되는사람이술광이면 그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은참말큼니다 술취햇슬때수태한아이는백에열네쯤이오전한아이이고 그다음 팔지오인쯤은 이상아(異常兒)즉 기형병적 천치백유(白痴)—등의질병을 가지고난답니다 이런것을 생각하면 알콜의 해독을 짐작할것입니다

술과수명

고금동서를 물론하고 술주정뱅이는 보통사람보다빨리죽습니다 상습음주자는보통사람보다 평균수명이 더 죽는다는 통계가잇습니다. 뿐만아니라 술먹는사람은아무래도 일에능률이적고 따라서 모든일에 정확하지못합니다

티눈은 이러케뺍시요

거름을걸을때마다 아파견딜수업는발의티눈을 빼는방법을 말슴하겟습니다 빵부스러지를 초(酢)에다 이겨가지고 티눈난자리에바릅니다 그리고는 반창고를열십자(十)모양으로붙처 떠러지지안케합니다 그러고는잡니다 어러번사흘밤만되면 티눈이 물러저 파내기쉽습니다 또는밤에자기전『사리찌루酸』을 바르고 붕대로처매두기를 여섯밤계속하다가 더운물에발을 담구고서 손톱으로파내도 빠집니다 그런데 『사리찌루酸』는 티눈자리이외에는바르지안토록 주의하십시요

머리에물드리는약 몸에고장잇슬때는탈나 무슨까닭일까요

마음놋코못쓰고

요즘 머리털을 물드리는약이 잘팔리는모양입니다 이만흔데 이것은 잘못드리면상당히 위험이잇는고로 특별히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먼저 염모제(染毛劑)에대한지식을 충분이 어더가지고 물을드리지안흐면 안됩니다. 염모제에는 여러가지가 잇스나 일반으로 쓰이는것은 파라페니ㆍ렌쟈민가튼 극약(劇藥)을중요한원료로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것에 비해서 갑도차고 물이 잘들고 또오래가기도합니다.

이염모제에는 대체로 흰가루와 검은가루와 액체가잇는데 검은가루는 극약 흰가루는 전분으로써 흰가루를 쓸때 적당한 분량보다 만든지 적든지해도 검은가루와 흰가루를 섞거가지고 물을 부어끄린든지 또는 운물을 붓는지하는데 조금부어서 진하게해가지고 드리면 더잘물들고 드렷드니머리가 몽창빠저버렷다고 하는사람도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주의서의 써노흔대로 적당한 분량을 넘치안흐면 안됩니다

이액체가 다식어진다음에 거기에 옥씨풀을 너흐면 이것이 공기중에서 산화하는순간 렌자민으로부터 진한자주빗의 검은 독소가생기는데 이독소가 털을 검어케 물드리는것입니다

이와가티 독한약을 쓰기때문에 몸에 고장이생겻거나 예를들면 상처 헌데, 신장병, 치질가튼병이 드러슬때도 꼭삼가야합니다 웨그러냐하면 몸에상채기나헌데낫슬때쓰면 그것이 고름이들어가지고 단독을 이르키는일도 잇는까닭입니다 이러한 병뿐아니라 흑체질에 맛지안는분도잇스니 먼저 이약을팔에다 조금바르고 붕대를해서하룻밤 지내보면 아무러한일도업는사람은 위험하지안습니다

물드릴때는 이마ㅅ전가튼데는 콜ー드크림을 발러서 약이뭇지안케하고 머리에 바를때도 머리밋살에는 뭇지안토록 조심해야합니다. 다드린다음엔 비스로 살뜰비 갈러가지고 할것입니다. 서서 약이 골고로 퍼지도록할것입니다. 머리를 말리는시간도 약품에따라 다르니 어쨋던 주의서를 자세읽고 물을드려야합니다.

라디오 JODK

어린이時間 (五日後六、〇〇)

世界偉人이야기 가리발디將軍 光成中學 劉昌宣

어태리(伊太利)는 지금으로부터 八十年前까지 나라가 통일되지못하고 각각 적은나라로 난호여잇서서 다른나라의간섭을바다왓습니다. 이때에 가리발디장군이 『마치니』라는 사람과함께 북부어태리(伊太利)를 정복하고 또 열천명으로조직된 붉은샤쯔당원을출동하야 남부 어태리(伊太利)를 마자 정복하야 이마뉴엘王에게 바첫습니다 이태리(伊太利)가 오늘날 세계의강국이된것은 실로 이 가리발디장군(將軍)의 공로가 큰것입니다.

講演 (五日後七、三〇)

「가을의藥草」 藥專助敎授 沈鎬鎭

산과들에는 약초가 만습니다 그약초는 가을에만히 채집(採集)을하게됩니다 지금까지에는약초의대부분을 지나(支那)에서수입하야다썻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변때문에 수입두절이 되여서 약재의부족을 늣기고잇는형편입니다 그러면 그약초의대부분은 조선에서도 재배채집을 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약초의자작자급(自作自給)은 대단히필요한문제로 되게되엿습니다 그것에는 산야에서야생(野生)하는약초를 채집하는것과 농가에서부업(副業)으로재배하는것과 또한가지는 원예취미(園藝的趣味)로 배양하는것 어떠한 약초가잇는가 채집법 재배법이러케 나누어서 말슴하려고합니다

社會見學 (五日後八、〇〇)

『레코ー드吹込光景』 빅타ー會社京城吹込所에서 見學者 南海燕

대중오락(大衆娛樂)의첫재가되는 『레코ー드』는 어떠케 취입하는것인가 그것은누구나 가지고잇는 궁금한것의하나입니다 오날은그광경을견학하라고 합니다 경성장곡천정(長谷川町)『빅타ー』회사취입소까지 『마이크』를옴겨서 그광경을보기로 하얏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연양이 우리들을대신해서 견학하겟습니다 『레코ー드』취입의 그작업경과(作業經過)는 방송(放送)과 흡사합니다 즉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소리를 일정한진폭(振幅)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리는것이아니고그소리를녹음하여서 판에집어넛습니다 처음소리를넛는판을『왁쓰』(Wax)라고한답니다

라디오프로그람

五日(月曜)

◇午後六時(平)世界偉人이야기 「가리발듸」 劉昌宣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報 李鍾燕
◇同七時 뉴ー스 就職案內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가을의藥草」 探藥이야기 藥專助敎授 沈鎬鎭
◇同八時 社會見學ー日本빅타ー會社京城吹込所로부터中繼ー
◇同八時三〇分 獨唱 [illegible] 一、勝利의밤 카리시미作曲 二、歌劇「따ー다뉴스」中에서 사키니作曲 카바티나 三、꿈의薄 뮐로作曲 四、시실리아나中에서 [illegible]作曲 어머니울지마러요 五、사랑의生命 [illegible]作曲 피아노伴奏 [illegible]
◇同九時(平)西道歌謠 一、긴難逢歌 二、자진難逢歌 三、愁心歌 四、긴아리 五、山念佛 六、興逢歌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豫報 明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朝鮮語講座(一)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實用英語會話
◇正午(東)木琴
◇午後六時(釜)童話
◇同六時二五分(城)童謠
◇同七時三〇分(城)新講
◇同七時四〇分(東)新講
◇同八時(東)[illegible]
◇同八時三〇分(城)小唄
◇同九時(東)物語 [illegible]

六日(火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歌謠曲(레코ー드)
◇午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朝鮮大衆音樂[illegible]】
◇同四時 뉴ー스 [illegible] 音樂
◇同六時 [illegible]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七時 뉴ー스 就職案內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一、室內樂 [illegible] 第一樂章 [illegible] 第二樂章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라디오코메듸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豫報 明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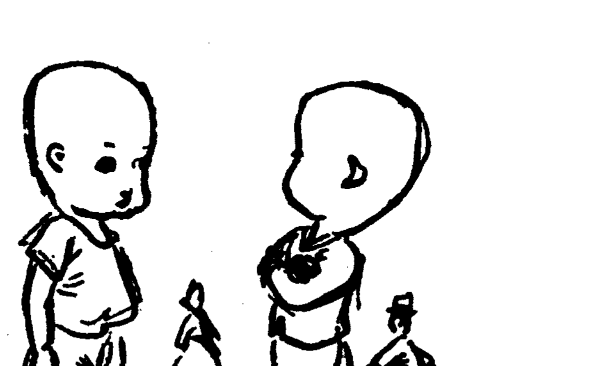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illegible]
◇正午(東)[illegible]
◇午後六時(東)[illegible]
◇同六時二五分(東)[illegible]
◇同七時三〇分(城)[illegible]
◇同八時(東)[illegible]
◇同八時三〇分(東)[illegible]
◇同八時四〇分(東)[illegible]
◇同九時一〇分(東)[illegible]

지챠리우

신발소리

「에 난 거러가는사람의 신발소리를 듯구 세 남잔지 여잔지알수엇다」
「피, 네까지께」
「정말이다」
「그럼 내가 거러갈께 아러켜내봐라」
(글은사람 우전전)



會期臨迫!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申請期日 九月五日 ー 豫選 九月二十七日 ー 決選 九月二十九日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 Impromptu(卽興曲) No. 4 (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協奏曲) No. 6 (B Flat) 1樂章(로ー데)

【譜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申請한후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賞 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 콩쿨賞을授與함

賞金 一等一人二百圓 二等若干人各五十圓 特別社長賞壹百圓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愚氓 【124】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세가지일 (7)

근순이가 도라간뒤에 홍서방 내외는 방앗간에가 마주안저 외면한체 한참에 그를 사이에 노코잇는 십원지폐다섯장」 그것은 근순이가 바루 이웃을 떠나기에 며칠전

『그럼 서울 가는 길로 대원님께 말슴을 올리고 부디잇스신대로 긴병을 할러이니그 즉시 근순이를 데리고 올러오시요 이돈은 약소하나마우선 근순이 옷이나 한벌 해입히고 남어지는 보며 상경할때 차비로나 쓰구료』

그래 실라고 사양하는 그를 내외에게 구주 쥐여 주고 간 돈이다.

내외는 해가 한낫이건만 마치 꿈을 꾸고 잇는듯 시펏다. 그러나 물론 꿈이 아니다. 장씨는 일찌기 구경을 한일이업는 십원지폐를 그것도 다섯장씩이나 한꺼번에 손에 들고만

적 만져하며,

『지비산속에서 그들은 부인네 말슴하던게, 영락업시 마저들어가는구료.』

새삼스러히 그러한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무엇이………?』

『무엇이라니? 목록이 다리나키전에 세가지 열을 치러야 한다지 안흐십디까? 첫재, 큰따님 시집을 보내야 한다드니, 자아 보구료.』

『글세ー. 그럼, 이담에는 우리가 솔가해 서울로 올러참잡인가?』

『그걸 누가 아우? 금순어떠 애 우리두 서울구경을 하게 되는게지』

『허지만 이거보ー』

『대원님 모신다는게 그것어………』

하고 그는 새삼스러히 주위를 둘러본다음에, 훨씬 말소리를나추어서

『그것이, 청을 삼겟단 말여야니야? 뭐시……』

『그러캐지. 허지만, 철도 첩나들이지, 대원님이라면, 이제머지안허 조흔 시절이 오는데 두 계룡산이가 어데 도망허실 정도령어 아니서유?』

『정도령어 아니라, 전도령이시징.』

『글세, 성씨야 어떠튼……。그 때니, 오늘 다녀가신 어른두 좋을그우에 무엇 더 바라겟소? 그런게 안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듯이

『참, 내 오늘 좀 나갓다 오까?』

『어델?』

『어딘? 새려 말이징 서울가서 대원님 봐두 잇스신대루 곳 길럴 하마 앙함면까? 그러니 널 모려라도 올려오라면 어째우? 그저 즉시 옷감 끈허다 봉아 볶아입혀 보도록 마련을 해야안켓소? 내』

『그두 그러쿤. 그럼 나두 어떠케 옷한벌 작만 해야지 그애만 호사 시키면 뭘해? 데리구 올러갈 내가 추레ー한 꼴이면……그렇게 아니라 그럼 아주 가치 가치 나서보까?』

『가치 나서다니 가게는 어떠케 허구?』

『어떠허긴 오늘은 아주 하루 쉬지. 만날 이밥생인가? 인제 멧해만으루……』

꿈가튼 소리를 한마디 할여니까, 그것을 군호나 삼은듯이

『홍서방 계슈?』

하고 누가 박게서 찾는 소리가 난다. 장씨는 불이나케 다 내다보며,

『거, 누구요』

『아, 오늘은 버리 안혀우? 그러캐……』

한 삼백석 하는것도 이조구석에서는 아주 왕이라 그래선 허 하는 꼴이 가소롭다고판 때엽시 업을 빼죽 내밀어구

『응 홍수로구면. 웨?』

『구장이 곳좀 오랍디다.』

『무슨일루?』

『무슨일은 머리깍 그러구 그리지.』

『………………』

『몸뎀이 낫수? 오늘 웬일여야?』

『아니야, 네, 그러긋 안다구가 서그래.』

홍수를 보내노코 (네장 마질놈. 머리를 깍끌려면제가 이발소루 오는게칙 번번히 집으루 불러다갓……놀도 보앗스나 제가 그러면 얼마나 그러노? 이제 삼년 엇스면 물난리에 몹쓸을 당하고 그뒤것 구장놈의 접안좀 써하나. 안남는것어 벼겨. 어떨레면 자기는 대원님의 『정이벌로』부귀와 영화는 혼자 독차지리고 홍서방은 스스로 흥분을 금할지어업섯다.

家庭醫学

便秘가原因이되는 여러가지病

★注目되는腸自家中毒의害

常習便秘의 害에對해서는 예지로부터以來 여러가지說이잇섯음에도 不拘하고 泄瀉와달라서 그害가比較的緩慢, 또間接的으로 나타나기때문에 흔히看過하는 傾向이잇섯스나 그後硏究가 進步됨을따라 從前에想像하든바 以上으로健康上有害한影響을받게된다는것이 判明되엿습니다 그中에도 그害가 가장만흔것은 便秘로오는 腸自家中毒으로서 이것은

糞便의停滯로말미아마

腸內의 細菌이食物을 分解하고 그에依하야 生한毒素가 血液中에 吸收되여서 여러가지機能을 冒害하므로 그影響은特히 循環器와 神經系統에 만히미치게됩니다 頭痛, 不眠, 倦怠, 眩暈等은가장一般的으로나타나는症狀인대 更히이것이原因또는誘因이되야 다른病을일으키게되는경우가 적지안습니다

例를들면 高血壓입니다 高血壓이라는것은 血管에對한血液의 壓力이노파지는것으로서 腦溢血과中風을이르키는일이 각금잇는대 腸自家中毒에依하야血管의組織이硬化해서 彈力을일코 高血壓을이르키는수가장만타고하고잇습니다

또毒素가 白血球를破壞해서惡性貧血이나 或은萎黃病이라는血液病을이르키던지 腎臟을害해서 腎臟炎을이르키고 膽粘膜을害처서 粘液性大腸加答兒를이르키고 更히最近에는 여러가지心臟障碍, 神經病, 肝臟硬變, 食餌性中毒, 肺炎, 脚氣等도腸內毒素에關係가잇는것이 追究되고잇습니다

다음에抵抗力이弱한 小兒에 잇서서는 毒素의害가 一層甚하야 腸內醱酵를 胃害하면 경련을이르키던지 갑자기發熱하던지하는데 그中에는 그로말미아마心臟이衰弱해서 生命에危險이잇는일도잇습니다 如斯히便秘가 直接間接의原因으로이러나는病은우리가想像하는 以上으로廣範圍에亘하야잇고 特히腸自家中毒에依한影響은警戒해야될것입니다 이것을防止함에는 于先腸內毒素의發生을 可及的抑制하고 便通이順調를가도록하는것이緊切하며同時에

腸內毒素의吸着

排泄을 圖謀하는것인데거기에 이쓰고잇는『錠劑わかもと』의服用이推賞되고잇습니다

이것은아시는바와가티複合해ー酵菌劑로서 그成分中에는十數種의腸內細菌을 殺滅防腐하는乳酸生成菌을 엔지ー무와解毒作用을노피는 구리고겐, 其他利尿作用이잇는特殊成分도含有해잇스므로 여러가지方面으로效果가 미치게되여서이 藥의服用에依하야 胃腸의調子가조코 便秘가輕快해서 氣分도明朗爽快해지는것은 當然합니다

飮食의相克 ー 파胃腸

새우에胡瓜果, 메밀라에수박等이라고 普通말하는 『飮食의相克』의 眞否를 的確히하기爲하야 榮養硏究所에서 試食實驗을 行한結果, 相克이라는飮食物의 食合은大槪아마 特殊한毒素가 생기는것은 認定치못하고 한가지라도不消化, 또는腐敗하기 쉬운飮食을 겹처먹음으로말미아마 각금中毒症狀을 이르키는것이 認定되엿습니다

그러므로 胃腸의消化機能이活潑하면 그런飮食을먹을지라도 거이그害를입지안코 反對로消化機能이 不活潑하면 아무것도아닌것까지 相克이되야害를 입게되는것인故로 恒常『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야 食慾, 消化, 便通의調和를 圖謀할것을推奬합니다

그리고『錠劑わかもと』中에는 [illegible] 能率正常케하야便通을整調합니다 [illegible] 營養素가 [illegible]

日本人의 食餌量은 大體어떤程度가조흔가?

大體日本人이 生命을維持하는데 必要한 카로리ー는 一日約一千三百카로리ー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을 행할때 되는 에네루기ー는이것보다 훨신만허서 二千五百카로리ー가 더要求됩니다

只今여기에 職業別로 大體의 消費量을드러보면

▼……會社員, 銀行員, 商人等 相當히안저서 일하는 職業을가진사람은 一日에二千二百카로리ー로부터 二千四百카로리ー

▼……細工人, 技術者等의 輕한 筋肉勞働을 하는사람은二千六百카로리ー로부터 二千八百카로리ー

▼……職工이나 工場勤勞者의 中等程度의 勞働을하는사람은 三千으로부터三千五百카로리ー

▼……農夫或은 屋外勞働者는四千카로리ー以上。

이必要하다고합니다

以上은 理論的으로 다만카로리ー만을 말한것이며 實際問題로서는 食物의質ー卽榮養의配合이라는것이 極히緊要합니다 그리고이點으로 今日一般人의 食事를보면 相當히 平衡을잃코 잇습니다 食養硏究所其他의 實際調査에 依하면 大體로 카로리ー要求量이 적은 知識階級은 相當히 豐富한 榮養食을 攝取하야 補充하고잇스나 一般으로 含水炭素가만코 따라서비타민B의攝取가不足되고잇습니다

그結果는 必然的으로健康上에 나타나서 精力도消耗하기쉬웁고 또 다른사람보다 疲勞하기쉬웁고 또結核과胃腸病, 脚氣等의發病을惹起할危險도 만흔故로 이것을防止함에는 비타민B의不足에빠지지안토록하고 一面으로는 食物이一部에偏하지안토록 多種類의食物을攝取해야될것입니다

再發안胃擴張에 父親에게서救援의藥

(小倉市堺町山歐園) 平林定治

小生胃擴張이된原因 도한症勢가 樣樣하든뒤 여러가지 滿腹時와 空腹時를不問하고 胃를집어뜻는 듯한痛症을 感하게되는데 그 第一條件으로서는 永年椅子에 안저서 일을 하며 運動은 못하엿습니다 그래서 結局 內科醫의治療를밧고 三十五日間醫師가 시키는대로 通院하엿든바全治햇다는 診斷을밧고 月餘를經過하야 다시 不知不識間에 胃擴張이된듯 空腹感과 同時에 痛症을 感하야 무엇을먹으면 조곰圓滑한 氣分이되엿습니다 約一個月間醫師의말과 좃치안은 食事를 하던 그뒤 藥을 먹엇더니 苦痛이업서지고 再次 前과가튼痛症을 感하게되엿습니다 友人들은 이藥저藥 여러가지 勸햇스나도 藥局에서 服用하고 每日苦痛을 차츰 덜어서 이제는 藥을 먹기가쉬우므로 重病의 症狀을 感하게되엿습니다 『이藥은 잘듯는구나』하고더욱熱心히 服用한바 그로부터 快癒케되야多少의 不攝生은 아무러치도 안어서 服用을中止햇스나지금은 날마다 배탈이낫다는 이야기는 잇지마는 小生만은 平常과다름업시勤務를 하고잇습니다 이것은 故鄕의父親으로부터 이藥을먹어 보라고『錠劑わかもと』를 보내주셧슴니다

그方法으로서 勸하고 시픈것은 『錠劑わかもと』의 服用입니다 이藥은 비타민B가 가장豐富한 酵母菌을 基礎로해서 製造한것으로서 이것을服用하면비타민B의不足으로 補充할뿐만아니라 胃腸을强하게하고 消化를돕는여러가지酵素도 豐富히含有해잇스므로 여러가지食物을 攝取해도 消化가잘되고 含有해잇는榮養素의吸收도 充分히됩니다

『錠劑わかもと』는 東京市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도 百錠入一圓六十錢 千錠入五圓이라는 一日分겨우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廉價로 販賣하고잇습니다

傳染病の威脅 疫痢 赤痢 チフス
一回の服用で一夏有効
無毒無害安心하고服用
ヘテロゲン
헤테로겐은在來의無害한傳染病豫防劑로서從來는各府縣衛生課의推奬으로 [illegible]
一劑로赤痢疫痢 腸チフス及 胃腸炎을豫防하는各國特許의 世界的發見藥
一人分三十錢 [illegible] 發賣元 東京市芝區 [illegible] 製藥株式會社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三日……(十一)

孤雲과 雙磎石門

(30) 李殷相

雙磎寺의主人은 實로 眞鑑國師라하겟지마는 그와 아울러 崔致遠이 없었더면 雙磎寺가 이러지못할는지도 모를것이니 그러므로 孤雲의雙磎寺라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압서 眞鑑이잇고 뒤에 孤雲이잇서 實로 雙磎의 雙絶이라하려니와 그야말로 錦上의 添花요, 山輝而川媚라, 淸風明月도 일즉 雙磎寺重刱記에 이두분의 功業을 感激하야 『孤雲儒也、眞鑑禪也、眞鑑釋也、給與人天之眼目、孤雲立儒震出儒道之傳燈、吁二人之心、一種發于凝也、其曲也若春風之泰舞、其曲也若秋霜之澹歟、一起一伏、一表一裏、而相爲其耳』라하엿다.

孤雲이 일즉十二에 入唐하야 그抜群의 大才를 中土에 휘날리고 靑年에 벌서 名聞天下하야 二十八에 東歸의 뜻을두고 憲康王十一年(八八五)에 本國으로 돌아오자 憲康王이 侍讀兼翰林學士兵部侍郞知瑞書監事를 삼앗스나 그뜻을 行하기 어려웟고, 나아가 大山郡守(全北泰仁)太守가 되엿도 잇섯스나 西國과 東國으로 오나가나 亂世에 處하야 오히려 그 一身邊이 허물입기가 쉬우므로 스스로 不遇를 傷하고, 다시 近仕의 뜻이 업서 山林속에 逍遙하고 江湖가에 自放하야 高僧大德과 詠歎하고 風月을 嘯詠하니 저 慶州南山과 剛州氷山이 다 그의 藥杖地요 映州淸凉寺와 合浦別墅가 다 그의 遊化處이엇다.

晩年에는 伽倻山에서 隱遁棲神하다가 終老한것이로되 그의一生中 重大한 遊息地로하야 記憶할만한곳은 여기 이雙磎寺를 中心으로한 一帶다.

一世紀의末에 處하야 末世의一生을보면 不遇의天才가 어찌어 隱伏하야 詩壇의새벽에 『風耐東流水不回、只催詩思亂人來』라 搖落을 통해 가을비오는밤에 『秋風唯苦吟、擧世少知音』이라 함께함이엇을 헤아리면 오히려 時代가 再現한지라 人物의復見도 잇슴직하지안흔바 아니어니와 그럴수록 그의遺蹟이 그럴고도 눈물겨웁다.

智異山의 一老僧이 山中石窟속에서 異書數帙을 어더보매 그中에 崔致遠의 親筆詩稿一帖이잇서 十六首를 傳하니 그 詩篇을 國大倫이 그餘篇을 어더 李芝峰에게보내엿스므로 芝峰이 그것을바더 崔致遠의 眞蹟임을알고 賞重히여겨 그의 著芝峰類說卷十三에 錄한것이잇다.

東國花開洞　壺中別有天　仙人推玉枕　身世倏千年。

○

萬壑雷聲起　千峰雨色新　山僧忘歲月　唯記葉間春。

○

雨餘多竹色　移坐白雲閑　寂寂因忘我　松風枕上來。

○ 春來花滿地　秋去葉飛天　至道離文字　元來在目前。

○ 澗月初生處　松風不動時　子規聲入耳　幽興自應知。

○ 擬說林泉興　何人識此機　無心見月色　默默坐忘歸。

○ 密旨何勞舌　江澄月影通　長風生萬壑　赤葉秋山空。

○ 松上靑蘿結　澗中流白月　石泉吼一壑　驚雪多飛落。

이八首의 詩篇가 果然이곳 山中石窟속에서 나오고 또孤雲의 作이分明하지 그는오늘 와 雙磎寺이 엇거니와 그가 外國의 讚辭으로부터 돌아왓스나 自己의 抱負를 펼곳이 업서 마침내 여기는山中으로 들어갓서, 아침저녁 그 石壁을 다만素石사이에 노며 흘러버린것을 생각하면, 千年後에 오히려 가는情을 참기어려운바 잇지안흐냐.

詩意가 淸新하고 文章이絢爛하야 新羅名僧의碑文이 거의 그의손에서 지어진것인中에 어지간 雙磎寺의 眞鑑國師碑는 더욱崔致遠의 筆蹟으로 유명한 글씨로써 石面에, 左에는『雙磎』右에는『石門』이라 大字를 새겨놋것이잇슴도 다그의 筆蹟이다 名山記中『雙磎石門、崔大如筆』의 筆勢의大함 이 오히려 筆力이 勁健한 놀라할만 함은 언제로 筆力이 動輒한 를 수록 든든하게생각이든다.

孤雲이 어떠어져 ■■上大에게 寄하는詩가잇스니

終日低頭弄筆端　人人杜口話心難　遠離塵世雖堪喜　爭奈風情未肯闌　影鬪晴霞紅葉徑　聲連夜雨白雲湍　吟魂對景無羈絆　四海深機憶道安(時休及第嘆)

이라한 그無限한感慨를 이곳에서바든것이니 그가잇섯슴으로 여기가잇고 여기가잇섯슴으로 그가잇섯스니 이 바로『人境具和』가아닐것이냐.

映畫時感

映畫文化論

―最近朝鮮映畫企業의變態性―

❶ 徐光霽

文化的인 映畫事業을 映畫監督이나 二三個人의 映畫技術者로서는 到底히 遂行할수업는것이다 朝鮮映畫의更生의 唯一無二의策은『映畫監督은 한개의演出家로 도라가고 그리고 푸로듀―서―制의 確立에잇다』는것을 여기斷言해둔다.

米國에잇서서 마다 企業으로서의 映畫事業의合理化와 洗練된 映畫界의打開는 必然的으로 푸로듀―서―制度를 確立시키고말엇다. 內地의 映畫界는 그러하니 東洋의푸로듀―서―制度로말미아마 全日本映畫界에준 刺戟은 크며 更生의길을 밟어나가려고하지안는가?

脚本은 根本的으로 明朗한푸로듀―서―에依하야 選定되여가지고 脚本部에서 脚色을하면 撮影臺本이된다.

撮影數의 豫算日數 尺數 셋트數 衣裳 大道具 小道具 役割 로케―슌 錄音 音樂等의 모든것에 決定은 絕對的이거야한다.

映畫를 企業的으로하라는 會社에 一個監督 一個의 카메라맨 一個女俳優때문에 그映畫가 左右된다면야 數萬圓乃至十萬의會社의 全體運用을 어떠케해나갈것인가!

그러면 오늘날 朝鮮의푸로듀―서―라는 사람이잇느냐? 나는 잇다고는 斷定을못해도 업다고는 斷言한다.

그理由는 朝鮮의在來映畫의監督은 映畫監督本職以外에 푸로듀―서―도 兼任해오게이니그렇中에서 그方面으로 나가려는 希望과 技能이 잇는사람을 내세우면 될것잇는다. 그러나푸로듀―서―는 一步進步된 藝術家인同時에 政治家여야한다.

요사히 朝鮮映畫界에 이러한 暇嗣이잇다. 朝鮮映畫를 企業的으로하려면 모든것을 事務的으로 하여야한다는 意味에서 映畫와는 全然因緣이먼 所謂비지네스맨을로 푸로듀―서―비스름하게 내세고映畫製作에 第一線에 내세운다 이것은 오히려 在來의 映畫監督一個人에게 作品製作을 맷기는것보다 더危險한일이다. 『모든藝術이 藝術家自身을 爲하야 存在한것은 아니고 社會의必要를爲하야 存在한것이다』란는말을 새삼스러히 朝鮮映畫界에 외치고십다.

最近 外國映畫의 築輸와 內地映畫會社의 提携等으로 朝鮮映畫界는 活氣를띤것가트나 其實은 混沌低迷에서 헤매고잇다.

우에말한 天才監督論에依하야 映畫를 製作하지안코 푸로듀―서―制度에서 映畫企業을 세워보라하지만 지금의 朝鮮映畫界에서 어느明哲한企業家가 朝鮮映畫를 企業的으로 살려나갈수잇슬것인가?

얼마전에 ■■映畫團의 紛糾事實만 보드래도 朝鮮映畫界에 一大不祥事라고 아니볼수업다. 貧弱한 朝鮮映畫에 잇서서 內地의 映畫會社와 共同製作或은 提携를하야『나그네』와『軍用列車』를 製作하야 그作品成否와 社會的問題는 뒤로밀고라도 朝鮮映畫를 內地에市場에 보내게하엿고 事實에잇서서 그로함미 아마 朝鮮映畫界도 刺戟이되여 여기 저기서 作品을 製作하고 잇는것도 事實이다. 그製作團體인 ■■映畫國이 今日까지 朝鮮映畫界에서 이름모를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진手段을 다써서 朝鮮映畫株式會社에 賣身시킨것은 眞一 朝映에 現在에모힌사람들이 정말文化人이요 朝鮮映畫를爲하는 사람들이라면 自己들은 五十萬圓의 會社이니 해가지고 數年이 지나도록 토―키―스타디오한채도못갓고 作品이라고는 個人의돈으로 지금하나맨들고잇고 四萬圓을드려 東京서 村山知義를다려가 春香傳을 製作하겟다는 그러한사람들의集合이 技術하나가지고 映畫製作을해나가는 朝鮮映畫를 살리로 어떠한사람들내세워 깨트려버리는것은 朝鮮映畫團에關係잇던 사람뿐아니라 다른사람이볼지라도 아름다운일이라고는할수 업다.

文化事業은 文化人의손에서만 成長할수잇는것이며 現代文化의 性格을 가장잘나타내는映畫가 非文化人에서 製作할수업는것이다. 우리들은오늘부터의 새로운 朝鮮映畫文化를爲하야 머리와 붓과 技術을 精進시켜야한다 열개의映畫製作보다 한개의 非文化的인 映畫製作體系를 正當히批判 解剖시키는것도 우리들의 크나큰 映畫運動의 目標라고할수잇다.

朝鮮閨秀文學考

◇…黃眞伊의現代的研究…◇

③ 申龜鉉

이家語는 白沙閨門內에서만 採用되든것이 아니라 最近까지士人階級의 그것이잇다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李德懋의『士小節』의 婦儀篇을 보면朝鮮女性들의 生活을 具體的으로 說明하고잇다.

即女子가 娛樂을 가잔다는것은 敗志淫儀며 淫亂之本이며또 女子의 身分으로서 拔縫紡績割烹酒食以外의 일에 參與한다는 것은 書傳에말한바『牝雞之晨』은『婦有長舌이면惟厲之階』이라는 말과가티 敗家의 張本이 된다는것이다. 그러타고해서 稗史即小說을읽어도 無關하다는것은아니다 一例를 들어보기로하자.

諺翻傳奇。不可貪看。廢置家務。怠棄女紅。至於與錢而貰之。沉惑不已。傾家產者有之。且其說皆妬忌淫褻之事。流宕放散。或由於此。安知無奸巧之徒。鋪張異之事。挑動艶羨之情乎。

이 一節은 女子가 諺翻傳奇即小說一切을읽어서는 아니된다는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한글이다.

이와가튼 觀念이 오랜 歲月을 두고 支配를 하고보니 女子自身도 이 鐵則을甘受하고 閨房을 그들의 파라다이스로 만족하여왓든것이다.

女子好文藏可鄙　那堪靑月吏吟風　勝粧鏡硯非吾事　描抑金針却有功

이詩는 곳 女子가 文章과 筆墨을 잘한다는것은 그의 天職이 아니오, 裁縫이 女工이라는 뜻으로 우리와 關係가 업는 宋나라 女流詩人 朱淑眞이 부른 노래지마는 朝鮮의 女性의 生活을 如實히 描寫한것으로도볼수잇다.

이까닭으로 그들에게는 참된 人間的生活이 업고 따라서 文學이 업섯다. 或 날카로운 文學的 天賦과 詩人의才質을 타고난女性이 잇슬지라도 모든 家訓家治이라는 鐵則이잇서서 中途에서 그들을 轉向시키어 道學者들의 人形으로 맨드러바리는것이다.

傳統的으로 그들에게는「한글」은 배워도 조타는 權利만을 엇게되엿다. 그것은 그들에게 한글을 읽히어 道學을 普及시키자는 政策에서 나온것에 不過하엿지마는 朝鮮女流文學史上에서 가장 意義잇는 點이다 即當時는 所謂 모든 詩人과 文人들에게 賤待를 바든 그들이 今日 우리의 立場으로 보아서 참으로 朝鮮말을 살린文者이며 文學을 保守해온 功勞者로 볼수가잇다.

訓民正音。子母翻切。初中終聲。雖婦人。亦當明曉其相生。相變之妙。不知此。辭令書尺。野陋[illegible]。無以爲戒。

이것은『士小節』의 一節인대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意味에서 女子가 한글을 알어야 한다는뜻이다 그러하나 한글은 그들 女子의 思想感情을 表現시키는 唯一無二한 道具이엇든 關係上 道學者들의 消極的獎勵에도 不拘하고 急速度로 一般大衆 特히 女流階級間에 普及되어 儒教界에 크나큰 波紋을 이르키엇다 그것은 學的態度의 自己批判反省運動에잇서 在來의儒敎보다 進步的인 異學派의 儒學은 오로지『한글』을 表現道具로한 朝鮮文學이 勃興하기때문이다 袁淸琴의 그의 貞敎婦人吳氏가 翻譯한『女四書』冒頭에 序엇다.

[illegible]近世閨閣之事。[illegible]千古笑[illegible]。

어라 하얏스니 이것은 곳英正以後 [illegible]小說이 知識階級에 주라엇은 婦女들間에 流布되여 道學者들 어지럽게엿다는 歎詞이다 더욱 [illegible]잇서 보이는것은 [illegible]山 洪[illegible]이 그가 지은『[illegible]』가운데서 告白한 事實이다.

[illegible]之[illegible]。如仇讐。[illegible]所不到。其所以[illegible]世[illegible]者。[illegible]在吾[illegible]。[illegible]下之完[illegible]。

即 [illegible]이 [illegible]을 仇讐가티 보아, 그[illegible]이 [illegible]보다 甚하다는것을 [illegible]하는 소연이다.

[illegible]山은 그 [illegible]이 女子들을 가르키기를 [illegible]는데서 [illegible]하다고 [illegible]을 내리엇다.

東俗敎女子。以[illegible]而不以文。是故生不聞禮[illegible]。殆石罷三綱五常之實[illegible]。皆是[illegible]不經之[illegible]而婦女不知都出於[illegible]。其反道悖德。[illegible]從此出。[illegible]父母[illegible]之以孝經・小學・女四書之等書。[illegible]其[illegible]狄禽獸矣。

이와가티 [illegible]은 風을 [illegible]正하는 方法으로 國家가 [illegible]를 [illegible]하고 父母가子女를 가르키기를 孝經、小學、女四書등으로 하자는것이다.

事實에잇서서 이主張은 士人階級閨閣內에서 [illegible]히 實行되어 女性들의 情緖生活은 몹시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마럿다 故로女子들은 社會生活에서나 家庭生活에서나 [illegible]히 [illegible]退하야바리엇다

漢詩

題梧桐　押陽

桐岡 李[illegible]

佳作之六

京城府鍾路町一三八之七

金基泓

亭亭直幹十尋長　庭是孤根自峰陽　翠色搖窓風勢亂　葉陰擁砌午睡凉　蟬吟葉底秋生意　鳳宿枝頭月射光　莫効與人燒以爨　成琴必待此材良

新秋畫文帖

가을꽃

文 李泰俊
畫 白潤文

미다지에 봉선레와부딪는소리가 재롱재롱들린다. 장마치른 窓戶紙가 요즘에침새 팽팽히 켜켜진것이다 이제 틀니는대로 미다지새로 바람것이 즐겁다. 미다지를 아이때는 종이로만바르지 안혓다. 鹿皮끈 손재비 여며 파꼬과 菊花와鷄來紅이를 뜨더다 꼿모양으로 둘러노코 풀수잇는대로 透明한 白紙를풀리 부치면 생각이 난다. 달이나 썩밝은 밤이면 밤에도 우리히 붙어지는 미다지엣 꼿송바리보면서 그것으로 긴 가을밤 꿈의 실머리를 삼는 수도 업지안타.

파꼬츤 가을이 올때 피고 菊花는 가을이 갈때이 온다 피고지는데 先後가잇되 다 마찬가지 가을꼿치다.

가을꼿、남쪽은 이미 黃金嘲에 머리를숙여 秦華로롬면 이제 뒷머리에서 겨우 됨리를을 처다보면서 우리가 든는것은 處女로 치면 婚期가 훨신 느즌셈이다. 恨되는 表情、그래서 健康한 때도 이우히 드러다 보면 한편지 感傷이 깍빈 餘에 풍기는것이다.

感傷이긴 코스모스가 더하다. 外來花에서 그런지 그는 늘 먼―곳을 발돋움하며 그리움에 피고 진다. 그의 아며 서면 언제던지 令女趣味의 슬픈 로맨스가 쓰고시퍼진다.

파꼬츤 흰히 때당에 피고 키가 나저 아이들이 잘 꺾는다. 단추구멍에도 꼬코 입에도 물고 달아달아 부르는 생각은 밤이 깁데 못 이켜서만 나는 생각은 아니다.

차차 나이에 무겨를 느낌수록 다시보히는 꼿은 그래도 菊花다 菊花라면은 雨에 節操를 말하는것은 실려 菊花라면 으레 隱逸士를 처드는것도 실라 作畵에 몸 아닌것에 文獻치레만시키는것은 그의 이슬 먹음은 生氣를 빼앗는짓이 된다. 요즘『파마넨트』처럼너머 人工的으로 괴는 展覽會用菊花도 실타. 장독대나 울타리 미테 피는 在來種의 黃菊이조코、盆에 피엇더라도 서투른 선비의 손에서 핀 떡납이 좀 부른 것이라야 가을다워조코 自然스러조타.

菊花는 四君子의 하나다. 그빨은 香氣를 기다려우리에게 주는것이 고맙고、그 水墨으로 주욱욱 그을수잇는 가지와 水墨그대로의지 고작 누른빛깔 한點으로도 종이 우에 生動이 떨치는 簡素한 色彩의꼿치니 빈을 어울진 가난한 書齋에도 도허 올리는 꼬치여서 더욱 고맙다.

菊花를 賞해서는 가을밤도 길지못하다 꼿치 이울기를 못기다려 몰어 언다. 웃옥에 드려노코 더운방다 드면 房안은 더욱 香氣롭고 풀지못하되 꼿과 더불어 잘수잇는것、가을밤의 黃福이다 나와菊花뿐이러니 하면 어떤날저녁엔 귀또리란놈이花盆에 ㄴ더 드러와다 울어내는것도 가을밤다 情趣의 하나이다. 가을꼿은 아지랑이와재 소리를 모른다. 찬달빛과 그들은 버레소리에 피고지는것이그들의숨픔이요 또한名譽이다.

新刊評

"焚香"을읽고

李燦第二詩集

尹崑崗

새삼스럽게 물어볼 必要는업다. 무엇때문에 예나 이제나 不幸과 生과 死……이런것들을詩人이걸겨 울고게 되는가를―.

問題는 極히 單純하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가든不幸과가튼 絕望을 맛보게되는가를 생각하여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現代의 모―드로 볼때에는그 일들이 너무 날근『焚香』! 그러나 詩의 價値란 세―리판쏘의 價値가 아님을 記憶할 必要가 잇다. 그러므로 焚香은 언제나 그의한精氣와 함께 現代人의 鄕愁를부른다.

애서봐야 보람업기
애씀을 버리엇다
생각해야 별수업기
생각조차 버리엇다
오 이제는 오리라
白痴의 幸福이여

―『白痴』의一部―

먹미나는 낮과 밤에 모래알처럼 우리가 씹어삼키는것을、가장 쉬운 말과 가장 自由스런 文體로、우리가『처음으로보고 느끼는것처럼』(장・콕토오의말)을 퍼뵈인 이詩를 읽고 共感을 지나처 오히려 멀미까지를 맛보게되는것은、그의詩가『날근詩』에 屬하는 까닭이라는 單純한 理由에서가 아니라 同時代人으로서의 우리가 所有한 感傷的 習性에서 비저지는 事實이다.

이詩人은 運命的인 自我의 不幸과 絕望을 안은채北方의 湖울 넘나고 때로 車窓을 벗삼어 孤獨을 분푸리하다가 한결가티 이마―주의 强度가 흐리고 맑의 密度이 不足하다 할지라도 暗澹그속에서몸부림치는 거짓업는 生活을 그런 사람스러운 대상의 면면게와 모히 우리가 親炙할수잇는것은 그까닭이다.

불이 불을 불품面慣를 주밧드시
눈물 물려 버꼬기만하고……

―『北方의길』의一部―

그러하야 우리는 自由詩의系統에서 자라난 어詩人에게업는것만 갓지못하던『비허비아리즘』의 멸미가『焚香』의 한그루 좀나무『焚香』수풀기는 그와 달밤 그놓진 수풀속의 내마음새와 바뀌인 事實을 目擊할수가 엇다.

울로 어여쁜 웨드여
이런밤 저정가가 조찬오나
그 달고 감주러운 웅쭉이
그 나뤈하고 포근한 여움
어 와라리 잠을 부르는
잠을 부르기―
밤은 十二月 寂寂도 머나먼
우리詩人은 주위가 제일 싫단다.

―『日暮・에리산』의一部―

그가 不幸과 絕望을 한시라도 이저버리기爲하야 南方의都會의 밤을 헤매이며『코코아』를 마시고『샬레리아』에 을 들리는 때에도『머리는 무거운』노스탈자―가 울어난다. 勿論、어떠케도『삶의어려움』을 비롯하야 나의 口味를 부르는 詩가 업는배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만 한개씨를 소개하는것으로 그의 안녕을 祈하기로 하자. (定價壹圓 京城府敦義町、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振替京城七六六〇番)

新人短篇

夜寒記 (三)

許俊 作
崔根培 畫

내생활과 의식가운데 무엇이 그런것이잇서서 그리도 무서운 가책 그리도 무서운 자기냉소가되여 항상 그러한꿈에 서려는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또 엇마나 피로하며 그피로함이 엇기여지는 그무한한시간의 시초가되여 무서운고통과 괴락을 가져오는 자기냉소람.

초아진도 그편만이어니엿다. 꿈이깨여서 얼마를지나도 잠이 다시아니오고 감은눈이 말거만지므로 손을모아서 가슴에 얻저도보고 그래도안되여서 성군에게서오든편지를 몃번이나 꿈집어 읽기도하엿다. 그리다가 어찌어찌 잠이들려고하엿는데머리마테서 무엇이 바스락하며며리털을 건드리는바람에 놀라께여 이내 잠을이루지못하는것이다. 그놈의쥐가 꼭 머리를 멤썩 비여볼어 그날카로운 연발자죽을 내여노코야말뜻이 머리만을건우고 달려드는까닭은 무엇일까 그러케 바스락하고 달려들다가도 불을켜면 잭픔사구니로 울어버리고 불을끄고누으면 또 달려들판하야 마치 무엇을붙든듯하고 무슨냄새를 맛는듯하엿다. 빠와덜온짠 그속에서 무슨냄새가나며 무슨 물어갈것이보여! 하고생각하니 혈끄리쭈빳하고 몸에 소름이 아니끼칠수없엇다. 그러나 이때 자기마음에 더 큰공포를준것은 그런것이아니요 그놈의쥐들잡느라고 이리떨치고 저리떨치다가 락떨처노코 기진하야 거기업펴저잇슬때들리던 안해의밭자욱소리、그 칭게를 밟버올라오는 밭자욱소리는 칭게가 한계단식 올어지는대로 올어들다가 두어계단이 나남엇슬대에서 딱 멈치여 무엇을 엿듯는 모양이엿다.

자기도 죽은듯이 업드려보흔채 머리를들어 그밟자욱소리의 동정을엿듯다가 다시놀아서 내려가는듯한동정을 듯고야 이러나 안저보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감정속의 처음생긴것은아니엿만 무엇인지몰으게 가슴이 몹시 떨리어렴을 깨달엇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오아칠 조반 먹으면서하던 안해와의생명보험 이야기를 련상하게한일이엿다.

「몸 마우천거리 삼천이아버지 죽으거 아시온」하는것이 안해의말이엿다.

「웅 어제들어서 악어 정오것 먹구 죽은사람들이 모두 정허가고 그래다드니 나와다지요 그런데그러케죽은건 남의손에죽은것이겨도아니오 자기가 죽은것이지만 자결인지 화산지 몰을때엔 어떠케되나요」

「그러치만 당자는 정말 자결할생각도업시 그저부광이 넘처서 죽은것이라한대도 자살이라고하면 문제가 아니야요」

「웅 그사람은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라지 그리고 문제는 무슨문제가돼?」

「허지만 자살이라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아니줘도 헐수업지안허요 자살이면아니준데지요 주나요」

「안주나 건 몰으갓는데」하고 반문하듯이 자기는 그만정도로 대답하고 말려햇스나

「아이구 어쩌나 안주면 그 권당을들어쩌나 생전엔 그러케 달려들홀하다간」하며 안해가 제가한말에 무슨 안색이나 나타낫슬가보아 머물을빽어도는것을보고 그런것도없서서

「허지만 준다는데 자살이래도 준다든가봐」하고 자기도 그대화엿다. 그리고 꼿나여 자기 먹꿈속에 째여들어가는뜻이하고만는 이러한생각이 순간적으로들러드는것을 이찌할수가엇섯다조만간 그런것이 오리라예감이요 새 내거동에잇는 모양이나 그러것은 절대로 업스리라고.

그러나 그때도 그리하려거니와 그것이 외 그래야하는가 그러한것일것이 분명할려이나까 그러케생각해야 올것인가는지를누어서 아모려한 고통과 아모려한 회오(悔悟)아모려한슬픔을 가지고저도 해결할수업는 일은 어아닐수업다.

시계의 몃점치는소리가 들린다 아마 석점이나 넘엇지는소리가 아닐까.

그는 해우와가티 어두우면서도 한엇시 팔거지는 자기마음에 차차 불안함을 늣기며 이러케하다가는 언제까지나 잠을 이루지못하고 래일 병원에가는것도 가지못하게되지안나하는초조한마음이 암점을 깨달엇다.

그때 그는 초아진 잠오지아니하는때 모양으로 벌떡 이러나 책상위에노힌 서군의편지를들고 잘자리를정돈하고 다시 누엇다.

앞은곳에발느면곳낫는

뜨거운해빛에 내리빛치여 힌옷을딸배오르게하는날에 진땀이 흐으도록 고통을주는 신경통 관절통으로 신음하시는여러분! 깃분소식이 잇습니다

아픈곳 쑤시는곳 결니는곳 멍든곳에조곰 발느시고 살ᄉ 문질느시면 고통이곧 낫는「사로메지―루」로 치료하시면 그렇게 심하든 고통에서 곧 버서나실수잇으며 더구나 약효는 병근원에까지 작용하야 근본적으로 완치케하여줍니다

그러므로 皮膚表面에 아무 고장이없어 근육심부와 關節마디가 쑤시고 아픈곳에 발느시면 患部에 溫感을주며 鬱血과炎症을사라지게하고 고통을곧낫게하여줌으로 밤잠도 잘주무시게만들어줍니다

또한 아픔이 몹시심하실때는 그환부에 따순물에잠것든 수건을꼭짜서 잠간대어 시엿다가 그곳에「사로메지―루」를발느신후 또다시 젼수건을 그우에대시고서 찜질을하여주시면 그렇게심하든 고통도 끈개이고 이로써 濕布의대용이 되오며 살ᄉ문질느시는동안에암마의대용이됩니다

아픈곳에발느면 곧낫는「사로메지―루」는 疼痛一切에 특효가 잇을뿐만아니라 疲勞를 속히 회복식혀주는약이니 運動競技 職務過勞로인한 근육통과 관절의疼痛 피로 염증등을 속치하여주며 발느고 주무시면 잠도 잘오고 더구나 그 이른날아침까지에 피곤함을一掃식혀주어서 원기잇게 활동을하시도록하여줌으로 오늘날에는 臨床치료에는 鎭痛劑로써運動競技에는 스포―츠약으로써 잇지못할 藥劑로 칭찬을받고잇는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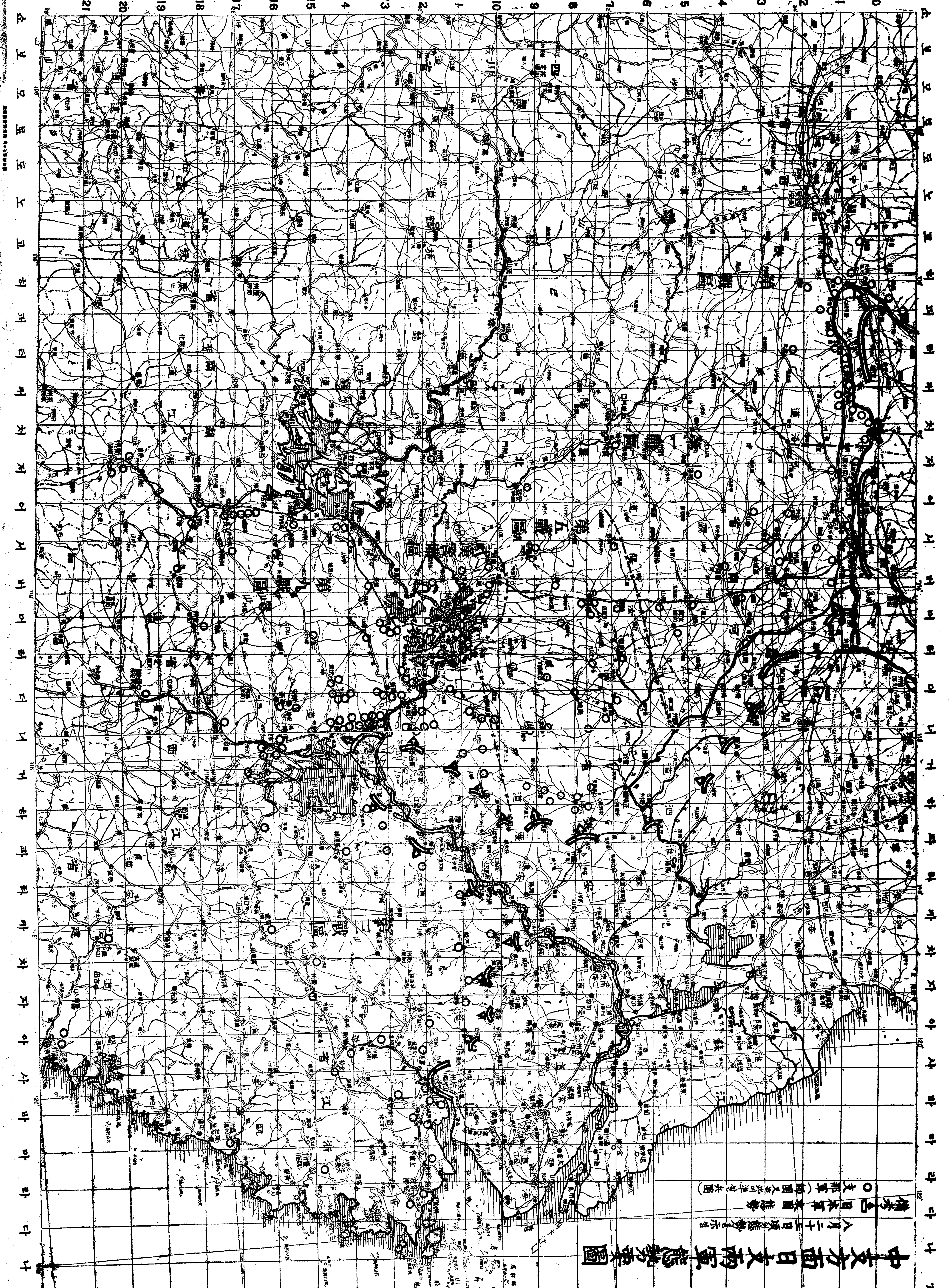
그러므로 本劑는 어느家庭에도 꼭必要한「家庭應急常備藥」으로써 호평을받고 잇사오니 以上과같은 증세에 특효할뿐만아니라 피부가가려운병 頭痛 齒痛과 咽喉痛 또는 빈대 모기의예방과 물닌곳에 발느시면 殺菌 鎭痛 制痒의作用이 强力함으로 한시도잇지못할약입니다

정가……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전도유명한약방에서販賣합니다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S.K.76


中支方面日支兩軍態勢要圖
備考 八月三十日頃의態勢를示함
△ 日本軍 兵團 態勢
○ 支那軍 (師團又는此에準할兵團)

電力統制再檢討時代

時急한『不意』의 對策

今番關北水害의 쓸아린 經驗으로 賣電한 平壤府民이 痛感

【平壤支社發】평양부민이 꼿꼿내 사수(死守)하려다 종시팔어버린 부영(府營)이던 전기는 그후에별로 요금도인하하여진 경험할수없고 또이따라 부민의손에서 승경게일 허저버린것이나 다름이업시되엿스나 평양부민은 어제와서는 그것에따하여 생각하는것조차 어저버리고 잇섯는데 어번의 장진강(長津江)수력발전(水電)의 고장으로 팔미아마 부민들은 새삼스러히 부전사수를 위하여 찾우던당시의 현련과 그때의 주장을회고하게되엿다

즉 부민들이 부전사수를 주창한데는 여러가지 근거와이유가잇섯지만 특히 그중에한가지 에전원(電源)을한곳에 더욱이나 먼곳에두는것은 만일의경우에광범위의 지장을가저올러이니 평양의발면매전(買電)도조흐나 어와병행하여 또는독자적으로 화력발전(火力發電)을하자고 주장한것이엿다

파연! 매신하지 일년이못되어 이주장이 타당하엿다는것을 자증할일이생긴세음이니 금번의수재로인하여 장진강과 부전강(赴戰江)발전소에 고장이생기고 그보다도 평양으로오는 송전선에 고장이생긴까닭에 평양을비롯한 서조선일대는 정전으로인한 큰 지장을면할수업섯다 서전(西電)에서는 즉시팔다남은 화력발전기를이용하고 도경성기타 수처에서 전기를빌러다 일시응변을 하여 전시의암흑화는 면하엿스나 공장의발동기는 대부분서지되고 가등(街燈)은꺼저 동화편제를 한곳이되엿고 전차대수는 감소되여 교통상의 지장조차이러나 실질적으로보다 수자상으로보다 서로 엄대전기수용가의바든 손해는결코적은것이 안니엿다

그런데불구하고 서선합동전기(西電)에서는 일반에게 사죄를 하는대신에 금정(今井)사장은금번에서전의취한 대책은 아조타당하엿다는듯이 자랑하고『전기동제가되엿기때문에 평양부민은 재난을면하엿다』운운의 마치평양에무수입이 잇섯는지 모르는듯한말을하여 부민의의아하고도 불쾌한감을사고 마침내 지난이일에열린 [illegible]평양부회에서는 복전(福田) 화산(丸山) 양의원이 이것을지적하여 부당국의 그미미한태도를 통격한바도잇섯는데 지나간 [illegible] 끼친교훈(敎訓)은 실로중대한것이라할수잇스니 발전소의고장뿐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수용지(需用地)까지의 길고긴송전선의 일부가끈허저도 결국정전을 면할수업다는것은 이번의천재지변(天災地變)뿐아니라 기타불의의피해를 방어할 경우의대책을 지금부터 생각하여 고려할필요가잇스므로 송전선의길이가 결코짧은 거리가아니니 일종의걱정이라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이에 [illegible] 의대책으로는 서전에서 화력발전기를 언제나 [illegible] 즉시상당량을 발전할수잇도록 대기적(待期的)자세로 상비할필요가잇게다는 의견조차 어떠나고 잇는바 [illegible]

工都化의鎭南浦에

需要電力百萬키로

大同江發電論도擡頭

【鎭南浦】진남포에는 이연、일산(理硏、日産)의 대생산공장이 진출(進出)결정되여 방금 각각공사가 진행되고잇거니와 이에요하는전력(電力)만도 약사십만키로를요하게되는바 전기일산、이연공장의뒤를이여 다수대소공장이 진출될형세를 보이고잇는 이만치 금후진남포에서 수요될전력은실로 백만키로를요한다 그러타면 남포문제는 그러케 거대한 전력을 어대서공급할것인가?대체로 압록강수력전기 완성기를크게기대하고 잇는모양이나 파연예상과가티 압록강수력전기가 완성되면 백만키로의 전력을진남포에 공급하게되겟는가 하는것이 의문중에 걸려잇다고한다 그래서 일부식자간에서는 대동강의 수력을 리용하여 발전사용에공급할계획도 잇는모양이다 하여든 진남포로써는 백만키로의 전력문제만 해결되면 불원한장래에대공업도시화할것은 명약관화의사실이니만치 전력해결문제가 매우큰 주목의적이 되여잇다고한다

爽姿──(鎭南浦支局員撮影)

포스트의受難

시골트럭이衝擊

【平南支社發】사일오전아홉시오십분경 황해도 장연군속달면태탄시(長淵郡速達面苔灘市)한국담(韓國談)이 조종해가지고 대동강안(大同江岸)에서 화신(和信) 지점아프로 질주하든 황해오천삼백사십일호『트럭』이 아페서 마조질주해오는 자동차를 피하려는순간 운전을 그릇치어『포스트』를들이받어트려파괴하면서 다시 부근어점리(漁店里)연초소매상 장경백(張敬伯)의 상점에 돌입 진렬장과 상품을 파괴하고 간신히『스톱』햇다 자동차는전면을 조곰파상햇을뿐 요행이 인명에 사상은업섯스나 일시는대소동을이르켯고 원인은 시골에서극히복잡한도시에 도착하여 복잡한교통기관에 눈이둥그래저서 실수를 한모양이다

六個部落이孤立

長津江水電의道路가浸水되여 咸南道에서對策講究

【咸南支社發】장진강 수전회사(長津江水電)의 공사로 인하야 장진군내 서한면(西閑面)유담(柳潭)사수(泗水)간의 [illegible]도로가 [illegible] 침수되야 벌써수일동안 서한면내 유담등여섯부락은 완전히 물가운대 고립되야 일체통행이 끈어젓다 이리하야 서한소학교(西閑小學校)에서도 지난달 이십일부터 임시휴업을 하게되얏스며 주민들도 생활필수품을 반입할길이 끈어저서 막심한곤난에 빠지고 잇다고한다 함남도당국에서도 이것을 중대시하고 장진수전회사당국과 대책을 협의하고잇는중이다

초부터 저수지의 만수구역(滿水區域)은 정확하게 조사하고서 도로를 설치할것인데 이번피가 돈을후로 이가티 도로가 침수되얏스므로 이번에는 다시 그도로를 옴기지안흐면안될것으로 도당국에서 이러한 방침으로 설정하엿다

鑛夫墜落慘死

【金化】김화군창도(金化郡昌道)지방은 유명한광산지대이니만치 광산에서 빈번하는 인명의사상사건이 끈일사이가업는바 [illegible]

八萬町步開墾可能

二百萬石增收容易

產米增殖計畫의復活을따라 氣焰吐할黃海道產米

【海州】십여년전 조선의산미증식계획(產米增殖計畫)에 따라서 황해도지방에도 십일개소의 수리조합(水利組合)이 창설의실현을봄에이르러 사만팔천여정보가 개발되여 현재백육십만석의 벼(正租)를생산 황해도산미 삼백이십만석의 태반을 차지하고잇는데 그뒤의정세는 산미의과잉을가져와서 [illegible] 산미증식계획도일시 중지되고 마럿섯다 그러나 사변발생이래 최근의정세는다시산미의 부족을 가저오고잇는터로 정부에서는 내지와및조선을 한데합친 산미증식계획을실시하려는 형세가 농후하여 그실시는 시간문제로 나마잇다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illegible] 실시를 보게되는날에는 황의왕국황해도는 실로전조선 제일의산미지로서 그성가를 빗치게 될모양이다 즉 황해도는현재 [illegible] 경지면적을가지고 잇는터로 삼백이십만석의벼를 생산하고 잇는데 [illegible] 수리조합의 조직가능한장소는 [illegible] 금후개간의예정면적은 팔만정보로서 [illegible] 개간되는날에는 예정대로 이백만석의 벼를 증수하게 되는데 황해도산미는 오백만석을 돌파하여 전조선산미의 제일위를 차지하리라한다

平北總動員聯盟

來十五結成式擧行

【新義州】평안북도에서는 관하 [illegible]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illegible] 오는십오일 결성식을거행하기로되엿다 [illegible]

吉惠線復舊는

相當時日必要

【咸南支社發】길혜선(吉惠線)은 이번수해로인하야 무수히 유실되여 전혀통차불능에 빠저잇는데 철도국에서 길주(吉州)에철도부출장소를설치하고 목하 매일 삼천오백여명의 인부를드려서 그복구에 노력하고잇스나 지금예상으로는 완전한 복구 [illegible]

防空講演會

【榮山浦】영산포에서는 박공강 [illegible]

督促手續이激增

釜山法院八個月間支拂命令

勿驚二千餘件을突破

【慶南支社發】금융경색(金融梗塞)으로 [illegible]

咸中線敷設陳情

大谷咸興商議로부터 荻原拓務次官에게

【咸南支社發】함흥상공회의소(咸興商工會議所)회사 [illegible] 오곡(大谷)씨는 [illegible] 함중선(咸中線)의부설촉진에 대한 진정을하엿다 [illegible]

迷信으로放火

【回川】[illegible]

平北道騷擾

[illegible]

治水와防空에置重

咸北造林計畫急轉換

【淸津】함경북도 산림과(山林課)에서는 [illegible]

罹災民救濟工事

勞賃撒布約二百萬圓

【咸興、北鮮】함남도에서는 [illegible]

府工事	[illegible]		
砂防	一〇〇〇〇		
鐵道、油、道路	一七一五〇〇		
各種林工事、施業	一五〇〇〇〇		
計	[illegible]		

時局關係轉業資金

貸付範圍遂決定

慶北道에서軍需、輸出業에限

【慶北支社發】장기전하 [illegible] 의목표 범위는 대략다음과갓다고한다

一、軍需工業에轉向하는 업자에 대한 [illegible] 施設費의 三分一

一、外國輸出貿易（滿洲、北中支除外）에 對한製造業者

麟蹄麒麟間道路

明春四月에着工

【春川】[illegible]

江陵上水道認可

【江陵】강릉읍 상수도는 [illegible]

思想報國聯盟

新義州支部結成

去四日公會堂에서

【新義州】시국대응 전조선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결성식은 지난사일 오전구시 이십오분부터 공회당에서 [illegible]

決議

一、我等은 皇國臣民으로서 日本精神을昂揚하고 內鮮一體의 强化徹底를期함

一、我等은 思想國防戰線에서反國家的思想을 破碎擊滅할內鮮的戰士가되기를期함

一、我等은 國策遂行에徹底的奉仕를爲하야 愛國的統後活動의 强化徹底를期함

右決議함

昭和十三年七月二十四日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關北災民에同情

義捐本社慶北支社서도取扱

【慶北支社發】금번 관북지방(關北地方)의 미증유의 대수해는 [illegible] 의연금을 본보경북지사(慶北支社)에서 취급하기로하엿다고한다

照明彈

[illegible]

平壤

第八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

▲日時 九月十日正午부터

▲場所 平壤府內公設「풀」

▲申請期 九月八日午後六時까지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南支社

小林製藥 强精劑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强性强精藥 男子性器短小（發育不全）早漏에百發百中！

早漏防止 太星莊藥房

淸導補腎丸

絹綿布現金問屋 時勢表進呈 秋冬用新柄品新入荷具備 絶對低廉 地方人士歡迎 京城 東順德

會商永吉 京城府寬勳町一四四 振替京城二七八 電光(3)三六六番

公告 [illegible] 淸算人 辛島秀孝

李鳴鶴先生 運命鑑定所

朝報案內

店舖讓渡

營業

時計 コトブキ屋時計店

仁川商工會議所議員 當選謝禮

今般仁川商工會議所議員最初의改選에際하야不肖等이當選의榮을得하엿사온바全혀有權者各位의深厚하온同情의賜物로思惟하옵고略儀이오나紙上으로써謝意를表하나이다

仁川商工會議所議員 崔吉九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朴南七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李聖宰

仁川商工會議所議員 宋壽安

仁川商工會議所議員 崔炳斗

仁川商工會議所議員 今井省三

仁川商工會議所議員 荒木弘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櫻井恒夫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河相勳

仁川商工會議所議員 金鍾燮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柳忠國

仁川商工會議所議員 黃潤

仁川商工會議所議員 吉田秀次郎

仁川商工會議所議員 齋藤二郎

仁川商工會議所議員 吉木善介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村田孚

仁川商工會議所議員 今井嘉三 直野良平 渡會儀市 金泰勳 金炳俊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浦上七三生 宇惠吉藏 中村寬一 靑島舖作 深見寅市

創立 明治三十二年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出張所 [illegible]

「벤졸」과「토루올」 (民需制限物資解剖)④

「벤졸」과「토루올」은 모두 炭水化物인데 그用途도 거이 同一하야 平時에잇서서는 染料用原料(主로「아니린」系)各種溶劑(主로樹脂、油脂類等)鍍化劑、發元劑等의製造、燃料、汚點板用으로서 使用되고 戰時에잇서서는 各種爆藥類의原料及航空機、自動車等의 內燃機關燃料로서 不可缺의것이다 그런데 我國의生産高는 그다지 豐富하지못하므로 軍需用을確保하기爲하야 自然一般民需用을 젤수잇는대로 制限하게되엿다。따라서 今後는 市場으로 積極的으로 制限되는 結果、必然的으로 市價昂騰을 招來할것이니 이에對하야도不遠最高價格制限가 實施될것으로보인다。

現在市價(三十키로入一罐)를보면 如左하다。

▲純「벤졸」 一四圓
▲「모이라-벤졸」 一〇圓三〇
▲「토루올」 不詳

×

現在 我國에서는 主로 各製鐵會社及 各地瓦斯會社에서副産物로서 生産된다。그런데그製造方法에는 石炭瓦斯로부터回收하는方法 「콜탈」의 分溜에依하는方法「아세치린」瓦斯로부터 合成되는方法이잇다。

一、「콜탈」分溜에依한方法 「콜탈」中에「벤졸」이 包含되여잇는것은 一八四五年 獨逸人「호프만」에 依하야 發見되엿다。이것은 分溜度沸點攝氏八十度에 잇서서 回收되는것이다。그러나「콜탈」에서 分溜되는「벤졸」「토루올」의 回收率은 極히低率로「콜탈」分溜에 對하야 僅一%、原料炭에 對하야〇、〇五%程度에 지나지못한다。이方法에 依한製造量은 極히少量이다。

二、石炭瓦斯로부터回收하는方法 이것은 石炭瓦斯로부터「크레오소―트」에 依하야「벤졸」「토루올」成分을 回收하는것으로 그回收率은「콜탈」에比하야 훨신良好하야 原料炭에 對하야서〇、八%乃至一、三%를回收할수잇다。現在大部分은 此方法에依하고잇다。

三、「아세치린」瓦斯로부터 合成하는方法 이方法에는「카―바이트」에 依하는것과 天然瓦斯에 依하는二種이잇다。前者는「카―바이트」의 原價가高價로서 工業化는 採算上大難이며 研究過程에잇다한다。

×

다음에 我國의需給狀態를보면 最近의數字는 不明하나 昭和十一年까지의數字는 如左하다

「벤졸」需給狀態(單位噸)

	生産高	輸入高	前年度繰越高	合計	內「토루올」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三六、〇〇〇	一、〇〇〇	三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十年	三九、〇〇〇	一、八〇〇	二、八〇〇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三四、七〇〇	六、〇〇〇	一、七〇〇	[illegible]	[illegible]

即昭和十一年의 製造高는約三萬四千七百噸(內「토루올」五千七百噸)이에對하야 輸入高는 僅六千噸、그리고 輸入高의約九五%는 滿洲로부터의輸入이며 殘餘는 米國等으로부터輸入하고잇다。

그런데 이것을用途別로보면 如左하다 (單位噸)

全供給高	四二、四六〇	(一〇〇%)
爆藥類及染料	一三、一六三	(三一%)
燃料	一一、四六四	(二七%)
溶劑	一二、七三八	(三〇%)
其他	五、〇九五	(一二%)

그런데前述한바와가티 今日과가튼 戰時에잇서서는 軍用爆藥類의需要가 激增되엿슬것이니 右의用途別比率은 거의一變되엿슬것이다。

×

近代戰은 極히複雜한機械戰이니만큼 性能이優秀한爆藥類의需要도莫大하다 따라서「벤졸」需要增加로 世界各國의 製造量이 增加하는바 世界各國의 生産量은 (單位噸)

	一九一三年	一九一七年	一九三三年
獨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括弧內數字는「토루올」生産高

따라서我國에서도 莫大한軍需用을充足하기爲하야는 單只一般民需用의使用을 制限할뿐아니라 積極的으로 그增産을圖謀하야 輸入을防止하는것이 目下의 緊要事이다。

就中「벤졸」에對하야는 一、獨逸 伊太利에서하고잇는것과가티 一定한「코―크스」爐를가지고잇는者에게 一定率以上의「벤졸」의 製造를 義務的으로 生産케할것

一、石炭乾溜에잇서서「벤졸」의生成量을 增加하도록 乾溜方法을改善하는가 原料「벤졸」의精製法을改善하야 純「벤졸」의收率을 增加할것

一、「아세치린」「메탄」等에서의 合成化학的 「벤졸」의 ... 企業化시킬것 等이實行되어야할것인데 이런必要에依하야 採算을度外視하고 全製造能力을動員하면 現在의 數倍의 供給을 生産하는것도 그다지困難하지는안흘것이다。

目下日本「카―바이트」會社에서는『아세치린』瓦斯로부터의回收를 工業化하고잇고 其他로는 日本製鐵會社 染料會社方面에서도 努力되고잇다。또製鐵會社 朝鮮石炭工業 宇部曹達等의石炭液化乃至低溫乾溜를하고잇는會社等도 必要에 應하야 容易히 供給源이될수잇슬것이다。

夏秋繭値基決定
生産費二百六十四圓
生絲價七七六圓時三十二掛

夏秋繭價格決定은 旣報와가티橫濱市勢七百七十六圓에 對하야三十二掛로 發表되엿는데 生産費를 逆算하면 二百六十四圓으로서 春繭値基二百五十二圓에 比하야 十二圓高이엇다

今年夏秋蠶掛目

圓以上	圓未滿	掛目
七〇四	七二〇	一八
七二〇	七三六	一九
七三六	七五二	二〇
七五二	七六八	二一
七六八	七八四	二二
七八四	八〇〇	二三
八〇〇	八一六	二四
八一六	八三二	二五
八三二	八四八	二六

昨年夏秋繭掛目

絲價 圓以上	圓未滿	掛目
六九〇	七〇六	一六、〇
七〇六	七二二	一七、〇
七二二	七三八	一八、〇
七三八	七五四	一八、五
七五四	七七〇	一九、五
七七〇	七八六	二〇、五
七八六	八〇二	二二、〇
八〇二	八一八	二三、〇
八一八	八三四	二三、五
八三四	八五〇	二四、五
八五〇	八六六	二五、五
八六六	八八二	二六、〇
八八二	八九八	二七、〇
八九八	九一四	二七、五
九一四	九三〇	二八、〇

六으로 除하다 이번에 絲價七百四圓以上二十圓未滿에는 二十八掛로 決定되엿는데 어떠케二十八掛가 나오느냐하면 絲價七百四圓과七百二十圓의 中間價는 七百十二圓이 되는데 七百十二圓에서 生産費二百六十四圓을빼고 十六으로除하야 二十八掛란 數字가나오게된다

値基 타함은 生絲價에서繭價를 算出하는 基礎가 되는 生産費(製絲其他必用을 合算)를稱함이니 即繭을가지고 製絲하야 生絲를 만드는데잇서 生絲市勢에서 生産費를 빼고繭價를決定한다

掛目 이타함은 繭에包含된絲量(生絲로 産出되는 純分量)에依하야 繭市勢를 算出하는基準이 되는것이니 即掛目을 算出하는方法은 ▲滿算市場生絲當限과 先限의 平均價에서 値基를減하고 그것을 十六으로除하면나오다 滿算市勢는 百斤市勢인데 百斤은 十六貫임으로 十六으로除하는것이다

絲量 繭百匁中에 包含된絲量은 優等級十三匁、特等十二匁、一等十一匁、二等十匁、三等九匁、四等八匁、等外七匁(標準은十匁)

繭價算出 지난九月五日 橫濱生絲 前場大引은 當限七百七十二圓 先限七百八十圓으로 其平均價는 七百七十六圓으로되어 이번決定에依하면 三十一掛增適에 該當하는바 繭一貫中 百匁의 絲量의 것을標準으로하므로 優等繭一貫市勢는 三十一에다가 一、三을乘한것을 十으로除한것 即四圓四錢이된다

銀行의證券所持
半朔에一千萬圓激增
總額三億六千萬圓

八月三十一日現在京城組合銀行 有價證券所持高는 三億五千九百十八萬四千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一千九十萬九千圓의 激增、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六百八十萬二千圓의 增加이엇다

八、〇二〇▲麗水 四三、四九 九▲木浦 二二、八三七▲群山 八二、八八六▲江景 四、九〇〇▲仁川 八六、〇四七▲海州 九、六一七▲鎭南浦 一七、六 一▲元山 六、五八四▲浦項 五、二二五

京城手形交換增

京城手形交換所의 八月中交換高는 枚數十二萬九千九百五十二枚、金額一億千二百二十四萬二千六百六十八圓三十六錢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枚數九千九百三十五枚、金額三千二百八萬七千百十七圓九十二錢의 增加이라한다

不渡手形 人員枚數增加

八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의不渡手形은 小切手、約束手形、爲替手形을 合하야 人員四十三名 枚數七十八枚 金額二萬一千五百五十一圓으로 七月中에比하야六名 二十三枚의 增加이나 不渡金額에잇서서는 一萬一千四百二十六圓의 減少이엇다한다

産金副社長 草間氏로決定

産金振興會社長은 昭和銀行頭取田島道治氏로 또副社長은 現滿洲産金會社理事長 草間秀雄氏로 決定하엿다고 今日 總督府에 入電이잇섯다 草間氏는 朝鮮常駐로될터인데 理事級은 現知事級中에서 選任될터이라한다

銀行預金다시增勢
貸出도繼續增加
八月末의京城組銀現在狀況

八月末日現在 京城組合銀行帳面末에依하면 減少一方이던預金은 二億一千五百五萬六千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一千六十八萬一千圓의 激增이오 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七百七萬七千圓의增加이며 貸出은二億九千六百四萬五千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六十九萬圓、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六百八十六萬六千圓의 各各增加인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預金

	八月末現在	對十五日現在比較
定期	九三、三六八	三、四〇七
當座	三六、四八六	二、一六五
特當	三三、四二三	五九〇
通知	三六、六六九	四、七〇三
諸預金	三三、一五一	四、六二三

▲貸出

	八月末現在	對十五日現在比較
證書貸	四〇、一一五	三五三
手形貸	一三七、三七七	八八三
當座貸越	一〇、一二五	▲三八四
割引手形	三一、〇三六	▲三三三
荷爲替手形	三、四三三	二四

東拓貸付增加

東拓京城支店의貸付는(單位圓)

定期 一五、八一九、八九四

信託勘定少增

朝鮮信託本店의 八月末日現在信託勘定은 八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如左하다

金錢信託	[illegible]	[illegible]
有價證券信託	[illegible]	[illegible]
不動産信託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年賦	六六八三三、二五〇	
合計	一三、七〇三、一四四	

五十六萬三千八十一圓의增加이다

移出港在米 三十七萬石

米倉調査=各月末現在 朝鮮內移出港在米高(政府米를除外)는總計三十七萬二千八百七十八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一萬八千四百三十九石의增加를보이고잇다 總數內容은

	本年八月末	前年同期
正租	[illegible]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內地米	[illegible]	[illegible]
臺灣米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各港別內容을보면 如左하다 ▲釜山 五二、〇〇五 ▲馬山 ...

綿絲布聯理事會

朝鮮綿絲布商聯合會에서는 七日正午부터 千代田『구릴』에서 理事會를開催하고 左의議案을附議한다고
一、內地産品受拂에關한件
一、綿絲配給統制에關한件
一、新入會申請十三店承認의件

農村振興運動에 一層努力을希望

지난 三日에열린 朝鮮農會主催 全朝鮮地主懇談會에『農村振興에關한 總督府의 希望事項』으로서 提出된 內容은 如左하다

時局下에負荷하는 半島農村의使命의重大性에鑑하야 銃後生業報國을하여서 和協一致(行)을期하기爲하야 官民一致(益益)農村振興運動의 擴充强化에 邁進하고잇는時에 左記事項의具現徹底에對하야 다시一層의努力을要望함

(一) 高利舊債의借替整理 高利舊債의存在는 農村疲弊의禍症이므로 그의急速한 借替整理의 援助斡旋에 努力할것

(二) 中堅人物養成事業에對한協力 中堅人物의養成은 農村振興運動의 自助共勵에의 移行上必須의要素이므로 農民訓練所또는 農業補習學校의創設、改組 또는維持經營에 極力便宜를주고援助할것

(三) 農村의實地指導 日常農家에接觸하야 그의愛護指導에努力하는것은 相互의意思疏通、農家更生의 意慾振作上極히肝要하므로 更生指導部落의分擔、農村振興委員會委員等으로서의 農村의實地指導에 努力할것

(四) 營農의改善 營農의改善은 生産擴充의根幹으로서 時局下가장 緊切한要務이므로 左事項의徹底에對하야 一層勸獎또는 協力할것

가、二毛作의積極的普及
나、自給肥料의增産
다、農機具及營農及 副業資金의低利또는無利子의融通
라、營農의國策에對한順應 米外에棉、甘藷、馬鈴薯、麥類、大麻、苧麻、叺等의軍需及食用作物及副業品의增産
마、技術員의設置에依한 營農指導의徹底
바、採種圃、田또는模範作圃의設置經營

(五) 有畜農業의獎勵 有畜農業의經營은 農村의更生上은勿論 國策上特히 要緊한 要務이므로 牛、豚、緬羊、馬、鷄等의 家畜家禽의 改良增殖에 努力할것

(六) 副業의勸獎 副業의 實行은 農家의勤勞心의 涵養上特히緊要하고 現金收入의增加上 効果가만흔것이니 叺、繩、蓆、養蠶、養豚其他의 副業勸獎에 協力할것

(七) 消費節約의徹底 消費節約은 時局下特히 重要한國民的責務이므로 左의事項에對하야 一層그實踐徹底를期할것
가、冠婚葬祭費의節約
나、自給肥料의增産에依한金肥代의節約
다、草鞋草履의獎勵에依한고무靴地下足袋의廢止
라、棉花의共同販賣의徹底에依한 自家用消費의節減
바、農器具類의愛護、保存
사、色服의着用

(八) 協同事業에對한協力 部落의 協同事業及施設은民衆의 自助共勵、協同運動의素地의涵養上特히緊要하므로 殖産契、農用林地 共同耕作地 倉庫、集會所其他의 事業또는施設의創設經營에自進 援助協力할것

(九) 部落財源의涵養에依한部落의開發振興 部落의 開發振興은 根本的問題가 落着되기前에는 部落의 開發振興도 前途가遼遠하므로 이에對하야 援助할것

(十) 耕地配分의適正 耕地配分의 適正은農家의更生上 農村振興의 根本要素이므로 小面積을 耕作하는小作人또는農業勞働者等에 對한耕作地의貸與에 對하야 考慮하는同時에 또는金融組合等의 自作農創設의 擴充에 耕地의分讓에可及的 便宜援助를할것

(十一) 小作慣行의改善及優良小作人의表彰

株式 下押이나 下澁
今日의市勢(五日)

前場漸落 休日이지낫슴에도 依然한無材料에다가 警戒氣分醞成으로 買氣는 一層萎縮되어 ...

後場少弛 後場二十一圓五十五錢인 不變値에 始場後 利喰物로少戾하야 五節四十四錢이 ...

投資家는自重 拂込의壓迫加重

拂込 增資를歡迎하야그『푸레미암』을取하야서 採算上有利하든가 또는增配를 期待할수있는時代이라면 市勢는 取組高도적으니만큼 此處에서 本格의으로 段落을고할것이나 아직漢口攻略後의透視도스지못하고 北支의開發振興도 前途가遼遠하므로 이와가튼 根本的問題가 落着되기前에는 猪突的猛進을 할수업서 ...

當分反落途程 下押程度如何

東新百五十圓臺出現으로 그때로 騰勢繼續할른지 또는目前天井이되고말른지 疑問이던바드디어 騰勢는 挫折되어 目前의 天井이되고말엇다 漢口陷落이今明日에잇슬것이아니오 强化될것을 警戒하는 ...

後場下澁

東新百四十六圓八、鐘紡二百六圓五 鐘紡一圓四에大引

國債區區不振

期米 內地颱風 爆發

前場爆發 四國南方約百五十키로地點되는 海上에잇서 內陸으로侵入하기가 十常八、九이라는 颱風情報 ...

朝取期米取組內容

惡材層生疊出 米價滑落難望

颱風또襲來?

仁川在米減少

現在 仁川在米는 前週에比하야 三六、四四四叺의 減少를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左記와如하다

正米 淸算暴騰 沸騰

京城暴騰

仁川奔騰

釜山暴騰

大邱奔騰

木浦昂騰

群山奔騰

南鮮水原 (株) ... (米)...

海外經濟 三日

銀行券 三日

金利 手形交換

鰯油粕 麥粉

對外爲替

金銀價

正米 /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朝取主要株取組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

綿糸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京城物價 五日

[illegible]

株式 期米 玉 京城府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ヌ取引店

期米 東 仁川 趙俊鎬取引店

京城 益證券 仁川 益康

期米株式 大好評! 相場必勝秘訣 特價送料並九十五錢 京城竹添町三丁目中央出版社 振替京八〇七六